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026년 8월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가. 언어표현 및 어문 규정 적용

o 북한 동향 주요 내용: <u>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u>

※ 예외 경우

① 북한인물 직책 표기 시, 직책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직책만 표기

② 국내 인사 실명 비난 시, 이름의 성(姓)만 공개 ex) 홍길동 → '홍OO'

③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o 남북한 표현 차이 및 띄어쓰기 관련

① 생소한 북한 단어는 '괄호'로 설명
ex) 짜고들어(계획하여), 전구(본보기가 될 행동이나 사실, 앞장서는 사람)

②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③ 북한 고유명사를 제외한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해서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④ 월간 보도일지·주요 인물 동정은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나. 주요 인물 동정

o 당 부장급 이상, 내각 상급 이상 등 그 정도 수준의 주요 인물로 한정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o 월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 월간 북한동향에서 인용하는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약어로 표기

- 신문, TV, 라디오 : 노동신문 → '노동', 조선중앙통신 → '중통', 조선중앙TV → '조중TV', 중앙방송 → '중방'

o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북한 동향

경제 부문별 7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 5
북한 IT 인력 주의보 발표 관련 외무성 대변인 문답 · 7
한미일 협력 관련 군사논평원 논평 ····· 8
박태성 내각총리, 김종태전기기관연합기업소와 보산제철소 현지요해 ····· 9
일본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김여정 부장 담화 10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2026》 진행 ····· 11
교육 발전을 위한 지역별 경쟁 강조 ····· 12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13
국립교향악단 창립 80주년 기념 동향 ····· 14
전기절약 사업 선전 ····· 16
밀가공품 질제고를 위한 품평회 진행 ····· 17
우리 핵잠수함 추진 관련 장금철 10국장 담화 ····· 18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환경보호사업 추진 ····· 19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 20
한미연합훈련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 21
광복('조국해방의 날') 81주년 동향 ····· 22
체육경기 대회 관련 보도 동향 ····· 2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년 국립교예단 공연 및 수영경기 관람 ····· 25
신의주 온실농장에 현대적인 양묘장과 과수원건설 추진 27
박태성 내각총리 희천정밀기계공장 등 현지요해 ··· 28
김여정 부장,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관련 입장 발표29
한미연합훈련 관련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 31
《전국준법교양자료전시회-2026》 진행 ····· 32
청년들의 애국적 소행 및 성과 선전 ····· 33

김여정 부장,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 대남 담화 ·· 34
남포시 다락식주택구 2단계 공사 추진 ····· 35
표준탄광 건설을 위한 전국 현상응모 진행 ····· 36
전국 당간부 양성부문 교원강습회 진행 ····· 37
자기 지역 특색을 살린 지방공업공장 개발 제품 선전 38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진행 예고 ····· 40
재해성 이상기후 대비 대책 촉구 ····· 41
탄광마을 건설 위한 준비사업 각 부문에서 추진 ··· 43
당 중앙위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 44
미국 무기판매, 인권사업 관련 외무성 대변인 문답 45
평남도당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조직정치사업
추진 ····· 46
청년절 기념 동향 ····· 47
영국과의 외교관계 급수, 대리대사급 조정 ····· 49
전국 청년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개막 ····· 50
명사십리역 준공식 진행 ····· 51
김정은 위원장, 중국·네팔 국경지역 산사태 관련
위문전문 전달 ····· 52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 진행 ····· 53
미국의 북한 비핵화 발언 등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 54

주요 인물 동정 ····· 55

월간 보도일지 ····· 66

이달의 약사 ····· 72

경제 부문별 7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1 개 요

o 북한은 "각 부문의 7월 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 선전(8.3. 노동·중통)

- "상원·천성에서 타오른 증산의 불길" 언급하며 증산투쟁 강조 및 7월 성과 선전
- 석탄 → 금속 → 화학 → 전력 → 기계 → 철도운수 → 채취 → 임업 → 건재 → 경공업 순 언급하며 생산 독려

o 한편, 금속공업 부문에서 김책제철의 생산실적 보도, 장거리 정광수송관 운영 정상화도 언급, 그러나 황해제철의 조업 실적은 미보도 지속

* 김책제철의 조업실적은 지난 1분기 인민경제계획 완수 보도(4.8.) 이후 4개월만, 다만 구체적 실적치는 미보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3. 노동·중통)

o "상원과 천성에서 타오른 증산의 불길 …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타번져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7월 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

o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어"

-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7월 계획 수행", "연간 계획을 7월 25일까지 앞당겨 완수",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7월 한달동안 수천 t의 석탄을 증산", "풍곡청년탄광, 단위별 사회주의경쟁 벌려 7월 계획 140% 이상 넘쳐 수행"

o "김책제철, 장거리정광수송관운영 정상화", "산소열법용광로 운영기술 향상"

- "선철, 압연강재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철정광 생산 1.2배 이상 장성"

o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계획보다 훨씬 많은 비료 생산"

- “천성청년탄광 탄부들의 증산투쟁에 호응, 흥남비료연합기업소, 7월 계획 기한 전에 결속”

o “전력공업부문, 전력생산에 더욱 박차”, “북창화력, 7월 계획을 완수”

- “평양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등 발전설비 기술개건사업”

o “기계공업부문,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 “대안중기계, 전동기생산 일정대로”

o “철도운수부문, 7월 화물수송계획을 넘쳐 수행”, “평양철도국, 수송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

o “채취공업부문, 광물 및 유색금속생산을 장성”, “장림광산, 7월계획을 기한 전에 결속”, “영유광산, 풍년광산 등에서 종전보다 일생산량을 제고”

- “문평제련소, 용해시간 단축, 전기로의 만가동 보장, 매일 계획을 완수”

o “임업부문, 전국적인 7월 통나무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

o “건재생산단위,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계획보다 1만 t의 시멘트 증산”

- “문평제련소, 용해시간 단축, 전기로의 만가동 보장, 매일 계획을 완수”

o “수산성적인 7월 물고기잡이 계획이 완수”, “평안남북도 수산관리국, 계획 수행률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려”

북한 IT 인력 주의보 발표 관련 외무성 대변인 문답

1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 등 11개국의 북한 IT 인력 주의 발표 관련 중통 기자 질문에 대답(8.4. 중통)

* MSMT 참여 11개국의 북한 인력 위장취업 주의 '공동주의보' 발표(7.31.), 북한 IT 인력의 국적·신분 위조, 위장취업, 급여 송금 지적 및 신원확인 강화 등 권고

o 외무성 대변인 문답 형태로 북한 사이버활동 이슈에 실무 반응

* △5.3. 미국의 북한 사이버위협 제기 관련 외무성 대변인 문답 이후 3개월만 △7.11. 나토 정상회의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한미일 사이버위협 대응' 지적

o IT 인력 쟁점을 안보문제로 치환, 사이버상 대결구도 비난

- 북한 위장 IT 인력 문제를 "신빙성이 결여된 거짓정보 유포"로 폄하
- 비난 대상을 미국의 사이버 패권 추구로 전환하며 "미국 주도 사이버작전*이 전지구적 안보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

* '사이버플래그(Cyber Flag)'는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 훈련으로 '11년부터 매년 개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4. 중통)

o "미국과 추종동맹국들, 이른바 《싸이버위협》을 떠들며 벌려놓은 《공동경고문》 발표놀음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려는 불순한 목적"

o "《다무적제재감시팀》 성원국의 악의적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거짓정보 류포에 불과"

- "표면화되는 것은 그 누구의 《위협적 성격》이 아니라 서방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유령기구의 불법성과 진영대결의 엄중성"

o "싸이버공간이 불순세력의 리기적 목적에 도용되어 대결과 암투의 마당으로 화하고 있는 리유가 미국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 "싸이버공간의 핵심자원들을 독점하고 세계 최대의 싸이버전력을 보유, 운용하고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싸이버위협을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

한미일 안보협력 관련 군사논평원 논평

1 개 요

o 북한은 군사논평원 논평으로 미국 주도 다국적 해상합동연습 '림팩' 관련 한미일 군사협력 비난(8.4. 중통)

* 림팩(RIMPAC)은 세계 최대규모 해상연합훈련(6.24.-7.31.)으로 31개국 참가, 우리군은 올해 처음으로 연합해군 지휘임무 수행, 일본 자위대는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 수행

** 군사논평원 글은 '25년 5월 이후 1년 3개월만

- 역내 불안정을 조성하는 "침략전쟁시연"으로 "미국의 패권전략" 일환으로 규정
- 더불어, 한미 연합공중훈련 쌍매, 한국의 핵잠 도입, 일본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주일미군사령부 개편 등 최근 한미일 군사협력 사안을 일일이 거론

o 앞서 3국간 안보협력과 림팩 훈련을 비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7.18.)와 중통 논평(7.17.)의 연장선, 미국 주도 군사협력에 대한 '짚고 넘어가기식' 반응 평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4. 중통)

o "지역나라들의 안전상 우려를 로골적으로 무시하고 련합전쟁 수행능력의 부단한 강화로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보려는 미일한의 《3위1체》 성 위협"

- "최근 미국의 주도 밑에 태평양상에서 감행된 세계 최대규모의 다국적 해상 합동군사연습 《림팩》이 이를 실증"

o "지역의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쟁연습 《림팩》의 본질과 미국의 패권 전략 실현에 복종지향되여 수행된 일본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

o "조선반도 주변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향성은 보다 노골적 표현"

- "미국과 한국은 련합공중훈련 《쌍매》 감행", "주일미군사령부를 독자적인 《통합군사령부》로 개편", "일본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 "한국은 주변나라들의 《해상위협》을 떠들며 핵잠수함 개발을 본격화"

o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수립을 목표로 지역의 안전을 파괴하고 불안정을 재촉하는 미국주도의 《대결의 축》의 출현은 억제되여야 함."

박태성 내각총리,
김종태전기기관연합기업소와 보산제철소 현지요해

1 개 요

o 박태성 내각총리는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와 보산제철소를 현지요해(일자 미보도)(8.4. 노동·중통)

o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서 새로 제작된 궤도전차 운행의 안정성과 도금공정의 현대화 추진 등을 점검·당부하며 차량 제작의 수준 제고 강조

* 새 5개년 계획, 철도운수 부문에서 △철길 안정성 제고 △육해운부문의 현대화 과업 등 제시(제15기 제1차 전원회의, '26년 3월)

**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평양 서성구역 위치)는 북한의 대표적 운수기계 생산기업소

o 아울러 박태성은 보산제철소에서 설비관리와 회전로 가동일수 증대 등 통한 철강재의 증산과 수요 보장을 강조

- 화성지구 5단계, 지방발전정책대상 등 각종 건설 사업 추진에 따라 철강재 수요 증가, 이를 공급 보장하기 위한 제철소 설비의 가동과 관리의 중요성 당부

* 보산제철소(남포 천리마구역 위치)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산하 제철소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4. 노동·중통)

o "내각총리 박태성 …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와 보산제철소를 현지에서 요해"

- "각종 차량들의 생산실태와 도금공정의 현대화추진정형, 새로 제작한 궤도전차의 운행 안정성과 의장품의 질 등을 구체적으로 요해"
- "새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의 높이 잘 알고 차량제작의 질적 수준 더욱 제고", "도금직장을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도금 기지로 잘 꾸려야"

o "보산제철소, 철강재 수요가 날로 높아가는 데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

- "회전로의 가동일수를 늘여 단위앞에 맡겨진 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

o "협의회에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의 도금공정 현대화와 차량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제때 생산 보장 문제 논의"

- "제철소 기술자, 기능공 대우와 종업원 후방사업 개선 문제 토의대책"

일본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김여정 부장 담화

1 개 요

o 김여정 당 부장은 8.5. 일본의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를 '선제공격능력' 보유로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8.5. 중통)

- 평소 노동·중통 논평으로 일본의 안보정책을 거론하는 것과 달리, 김여정 담화로 격을 상향하여 언급

* 김여정 부장의 일본 담화는 3.23. 미일정상회담 담화 이후 약 5개월만

o 일본의 미사일 구비·발사 등을 '선제공격' 의도로 비난하며 '군사적 선택' 예고

- 토마호크, 12식지대해유도탄 등 북한이 사정권인 미사일 능력에 민감* 반응

*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을 사정권에 둔 장거리무기시험 부인할 수 없어"

- 미국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돕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동북아 지역 내 긴장 고조 책임 전가

- 일본에 대한 최고지도부("위임에 따라") 차원 "군사적 선택"도 시사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5. 중통)

o "선제공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일본의 책동이 실제적인 범행단계", "장거리 타격수단 대량확보, 다령역전방공간 실전배비는 선제공격형, 해외침략대형 재편"

-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의 배후에 미국", "아태 지역에서 일본, 한국과 같은 손아래주구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반제자주국가 안전리익 침해"

o "국제사회는 전범국 후예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야망에 각성을 높여야 할 것", "일본 스스로가 저들이 부린 과욕으로 인해 자국의 안전이 보다 커다란 위험 앞에 로출되였음을 체감하게 만드는 것"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과 군사지도부는 오늘날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설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위임에 따라 분명히 밝힘"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2026》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2026》를 개막 및 진행(8.5., 8.9. 노동·중통)

* 8월3일인민소비품 : '84년 김정일의 '인민소비품증산운동(8·3운동)' 지시에 따라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유휴자재를 이용해 만든 생활용품

o 평양지하상점에서 개막, "질제고" 및 "제품 다양화"를 주제로 전시

- 전국 400여 개 단위, 4,000여 종 제품 출품 및 모범단위 경험발표회 진행 예정
- 개막사에서 소비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성과·경험 및 기술 공유" 강조

o 전시회 참여현황 및 전시 제품에 대한 참관인 평가 등 전시회 성공적 개최 선전

- 출품된 소비품들이 각 도에서 사전 진행된 전시회에서 우수평가 및 신규 개발 제품임을 언급, 이에 따른 8·3인민소비품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보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5., 8.9. 노동·중통)

o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2026》 이 평양지하상점에서 개막"(8.5. 노동)

- "《소비품의 질제고와 다양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 "질개선과 새 제품개발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목적"
- "전국의 400여개 단위에서 생산한 4,000여종에 수십만점의 제품들이 출품", "전시회기간 소비품생산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의 경험발표회 등도 있어"
- "개막사, 지방공업상 김철범", "전시회를 통하여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소비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을 공유, 교유함으로써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이 즐겨찾는 제품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o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2026》 이 개막 첫날부터 연일 초만원"(8.9. 노동)

-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8월3일인민소비품들은 각 도에서 진행된 전시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거나 새로 개발된 제품들"
- "어느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여러 사람이 저마다 터놓는 목소리가 충격적", "8월인민소비품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 그야말로 질적비약 … 중앙의 경공업제품 못지 않아"

교육 발전을 위한 지역별 경쟁 강조

1 개 요

o 북한은 상반기 지역별 교육경쟁 결과를 평가하며 지역·기관·개인간 경쟁을 통한 교육부문 발전 강조(8.6. 노동)

- 제2차 교육강령 집행상의 편향을 지적하는 한편, 해주시 등 모범사례 소개
- 향후 △과목별 교원 확충 및 교원 자질 향상 △실험실습기반 마련 △교육강령 준수 △교육후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o 당대회 등 제시 과업에 따라 제2차 교육강령 안착 및 도농격차 해소에 주력

- 지역일군의 책임성 부각, 기관·단체의 교육후원 등 사회적 지원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6. 노동)

o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별 경쟁을 활발히 전개하자”

- “지역들사이 교육경쟁이 맹렬”, “올해 도농간 교육수준차이를 결정적으로 줄이는 문제가 당대회 과업으로 제시, 새로운 교육과정 전국적 실시”
- “일부 지역, 새 교육강령에 따른 기술과목교수를 전공과목담임이 아닌 교원이 맡아, 실험실습기재가 구비되지 못해 과정안집행 제대로 못해”
- “그 원인은 일군의 열의와 노력 부족”, “교육사업 발전은 전적으로 지역 일군들의 사상관점에 달려, 그에 의해 올해 교육경쟁순위도 결정될 것”
- “교육발전경쟁에서 생기는 지역사이의 차이는 교육후원사업에서의 차이”
- “앞으로 중시하여야 할 문제”, “과목수가 늘어난데 맞게 과목별 교원문제 해결·교원역량강화”, “충분한 실험실습토대 구축”, “교육강령 철저 집행”

o “모범교육시칭호를 수여받은 해주시 일군들의 사업경험”

- “실무능력 높은 교육일군을 시인민위 일군으로, 실력 우수 교원을 일군으로 임명”, “시 당·인민위 과장이상 일군들로 교육기관 고정담당제 실시”
- “교육지원전시회에 출품된 물자들이 전부 농촌학교들에 배당”, “시내학교 교육자들이 농촌학교들에 경험 일반화, 강습소 지도교원 전원이 매월 15일 이상 농촌학교에 나가 교수참관, 본보기 수업 진행”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8.6.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8.7. 노동·중통)

* 참가 : 여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 방청 : 중앙과 지방의 여맹일꾼

** 식순 : 제8차 대회 당 중앙위 축하문 낭독 → 결의토론 → 결정서 초안 제기 및 연구토의 → 결정서 채택

o 여맹원들을 "여성혁명가, 공산주의어머니, 공산주의교양자"로 준비시킬 것을 재차 언급, 여맹 제8차 대회(7.13.-14.) 당 중앙위 축하문 내 과업 관철 강조

* (여맹 8차 대회 당 중앙위 축하문) △인전대 기능 강화 △반동적 사상·문화·생활양식 배격 △여성 사회진출 확대 △다산 및 자녀교양 △기층조직 강화 등 언급

- △동맹 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철저히 수립 위한 기층조직 강화 △후대 교양 △공산주의어머니로서의 여맹일꾼 사상무장 등에 대한 토의 진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7. 노동·중통)

o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 6일 진행" (8.7. 노동·중통)

-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전체 녀맹원들에게 보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
-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고 참신하게 벌려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을 열렬한 애국심을 지닌 녀성혁명가,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교양자로 준비"
- "전 동맹 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사업 주선", "기층조직강화에 큰힘",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조직"
- "새세대들의 대바른 성장을 인도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 심도있게 토의"
- "녀맹일군들부터가 혁명적이고 고상한 품격과 교양자적자질을 겸비", "능숙한 정치활동가가 될데 대한 문제 강조"

국립교향악단 창립 80주년 기념 동향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 국립교향악단 창립일(8.8.) 관련 △축하서한 전달 △국립교향악단 창작가·예술인들과 기념사진 촬영(8.8.-9. 노동)

※ 국립교향악단 : △'46.8.8. 중앙교향악단으로 창립, '47년 현재 명칭으로 개칭 △'70년 1월 '3관편성 관현악단'으로 개편 △'00년 '김일성훈장' 수여 △국가 주요기념일 음악회 등 경축 공연 참여 △관현악곡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아리랑>, 바이올린 협주곡 <사향가>, 교향조곡 <선군장정의 길>, 교향련곡 <당에 드리는 노래> 등 창작

- (축하서한) "주체음악의 발전상을 체현한 국보급예술단체", "국가의 귀중한 재보이며 당·인민의 자랑", "새시대 음악예술발전의 전성기 열어나가야"
- (기념사진) 김정은 위원장, "국가부흥의 추동력인 음악예술 발전시키는데 견인기적 역할 수행", "혁명에 더 큰 고무격려"

* 8.8. 모란봉극장, 당 중앙위 일꾼·문화상 현은철·국립교향악단 책임일꾼들이 맞이

- (기타 행사) △기념보고회(8.7. 동평양대극장, 당 비서 주창일 등 참가, 단장 김주혁 보고) △기념음악회(8.8. 모란봉극장) △국가표창 수여모임(8.8. 당 비서 주창일 수여)

o 기존 정주년 행사와 달리,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 축하서한 및 기념사진 촬영

※ 60주년('06.8.8.)·70주년('16.8.7.)에는 기념보고회에서 당중앙위 축하문, 기념음악회 진행

- 국립교향악단의 "우리식 교향악의 새 경지 개척", "주체음악 발전의 애국공적" 등 공로를 치하하면서 "국가부흥의 추동력인 음악예술 발전시키는데 견인기적 역할 수행" 주문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8.-9. 노동·중통)

o "김정은 동지, 창립 80돐을 맞는 국립교향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 기념사진" (8.9. 노동·중통)

- "김정은 동지, 8.8. 창립 80돐을 맞는 국립교향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 축하격려 기념사진 촬영", "김일성상을 수여받은 지휘자 허문영 동무에게 축하의 꽃다발"
- (김정은) "우리 국가부흥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는 음악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권위있는 국립교향악단은 마땅히 견인기적 역할을 수행해야", "우리식 관현악의

장중하고 특색있는 울림이 우리 혁명에 더 큰 고무격려를 안겨주고 새시대 음악예술발전의 전성기를 주도”

o “국립교향악단창립 80돐 기념음악회 진행”, “국립교향악단의 공로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국가표창 수여”(8.9. 노동·중통)

- “새 조선의 첫 악단으로 창립되여 높은 음악실력과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창작창조활동으로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을 노래하며 주체교향악의 새 경지를 개척”
- “장중하고도 특색있는 우리식 배합관현악의 울림으로 심원한 음악세계를 펼친 음악회”, “《사회주의교향곡》의 심오한 사상예술성과 장중한 울림으로 하여 깊은 여운”
- “국립교향악단의 공로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는 모임이 8일에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데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창일 동지가 국가표창을 수여”

o “김정은 동지, 창립 80돐을 맞는 국립교향악단에 축하서한”(8.8. 노동·중통)

- “주체음악의 발전상을 체현한 국보급예술단체로서의 지위와 영예를 이어가고 있는 국립교향악단은 우리 국가의 귀중한 재보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 “당의 문예정책을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창작창조사업을 오직 당의 의도대로만 진행”, “새시대 음악예술발전의 전성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o “국립교향악단창립 80돐 기념보고회 진행”(8.8. 노동·중통)

-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면적 발전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예술창조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명작창작으로 공화국의 부흥발전을 위한 전인민적 총진군을 힘있게 고무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 “당이 밝혀준 창작창조원칙을 절대의 기준으로 틀어쥐고 광범한 대중을 당결정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음악작품창작에 총력을 집중”, “위대한 변혁의 새시대, 주체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

전기절약 사업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과학기술에 의거한 전기절약기술 도입 등을 선전(8.10. 노동)

- 문평제련소의 과학기술보급실 운영 등을 통해 절약 가능한 전력량 발굴 사업 선전

  * △펌프 역지변(역류방지기) 설치 △가스발생로 기술개조 등 통해 성능향상, 가동시간 단축 및 전력사용량 최소화

- '공장 실정에 맞는 전기절약사업' 강조하며 선교편직공장 능동형전기보일러 도입 선전

- 평양양말공장·안주절연물공장 등 전기절약사업 성과 공장 언급 및 전기절약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0. 노동)

o "전력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높아져", "전기절약의 가능성과 방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에 옮겨야 하며 그러자면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해야"

o "문평제련소 …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 … 예비도 효과적으로 이용",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현장기술 학습도 심화시키면서 대중이 전기절약예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도록"

- "펌프의 흡입관에 역지변을 새로 설치하여 종전보다 그 성능을 1.5배로 향상시키고 가동시간을 10시간 정도 줄여 많은 전기를 절약", "연제련공정의 가스발생로를 기술개조하고 여러 생산공정과 계통들에 저압정전축전기를 설치"

o "전기절약기술도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실리를 보장 … 선교편직공장", "전기절약에 효과적은 능동형전기보일러 … 기술설계를 완성 … 전기보일러를 능동형전기보일러로 개조", "능동형전기보일러에 증류수되돌이장치를 도입 …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진일보"

o "평양양말공장, 안주절연물공장 등 전기절약사업에서 성과 … 과학기술역량에 의거하여 앞선 절약기술과 경험을 자체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밀가공품 질제고를 위한 품평회 진행

1 개 요

o 북한 양곡관리성은 원산밀가공공장에서 밀가공품 질제고를 위한 품평회 진행(8.11. 노동)

* 양곡관리성은 해당 품평회를 분기에 한 번씩 진행 중

- 품평회에는 관련 공장·기업소의 밀가루, 칼제비국감 등 밀가공제품 출품

o "강원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건축공사와 설비의 국산화 등 실질적 전진을 가져온 원산밀가공공장의 일본새를 따라배울 것" 지시

o 관련 공장 제품에 대한 군중평가 결과 남포밀가공공장이 우수한 평가 획득

- "품평회 참가 일꾼·지배인 등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선 기술들 교류" 언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1. 노동)

o "양곡관리성에서는 개건확장된 밀가공공장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품평회를 분기에 한번씩 진행함으로써 앞선 기술과 경험 교류"

- "이번에 원산밀가공공장에서 진행된 품평회는 질제고과정에서 이룩된 선진 기술과 경험들을 서로 공유, 일반화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

o "성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강원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건축공사와 설비의 국산화 등 밀가공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온 원산밀가공공장 일꾼들과 노동자들의 일본새를 따라배우도록 지시"

o "품평회에는 양곡관리부문의 밀가공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밀가루(특급, 1급, 2급)와 칼제비국감 등 밀가공제품들 출품"

o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는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진행", "여기에서는 남포밀가공공장이 우수한 평가 획득"

- "품평회에 참여한 여러 도의 일꾼, 지배인, 기술자 등은 질지표를 개선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놓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으며 앞선 기술들을 공유"

우리 핵잠수함 추진 관련 장금철 10국장 담화

1 개 요

o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은 우리 핵잠수함 관련 비난 담화(8.12. 중통)

- 우리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서 △"미국 주도 핵잠수함 동맹" 결성 의도, 아태 지역 "핵도미노" 유발 등을 주장 △"국가해상주권 수호" 전투능력 제고를 강조

o 우리 정부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을 공식화한 첫 담화

-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 개인 필명 기사, 중통 논평 등을 통해서 주장했던 우리 핵잠수함 추진에 대한 비난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발표

* △김 위원장, "미국과 한국은 지역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26.6.23. 9기 2차 당 전원회의) △중통 논평,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핵무장> 포석", "<핵도미노 현상> 초래, 군비경쟁 유발"('25.11.18.)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2. 중통)

o "한국집권자는 핵잠수함건조계획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떠들면서 핵잠수함개발을 정당화하였음.", "궁극적으로 핵무장화에로 도약할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 한국의 최종목표임."

-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기필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도미노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o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의 패권축을 구축하고 전지구적 범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해보려는 미국의 대전략의 일환임."

-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로 진화시키는 준비단계로 될 것임."

o "국가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복합적인 작전전투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왜서 필수불가결한 제1의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되는가를 되새겨주고 있음."

- "우리 국가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리는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에 생존불가능, 재생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으로 될 것임."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환경보호사업 추진

1 개 요

o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는 환경보호를 위한 공해 방지대책 수립(8.12. 노동)

- 당위원회 지도 하, 연합기업소참모부는 제진장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목표 수립 △과학기술보급실 내 제진설비 관련 자료 구축 △공모 추진체계 마련
- 연합기업소 △전기제진기 극판 교정 △탈진망치 신규 제작·설치 △조습탑(냉각탑) 물 분사노즐 개조 등을 통해 제진 효율 제고 등을 강조

o 향후, '통합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2. 노동)

o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환경보호에서도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될 목표를 내걸어"

-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연합기업소참모부, 각 계통별주요설비들에 대한 제진장치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 "선진적인 시멘트 생산기술과 제진 설비들에 대한 자료를 과학기술보급실에 구축"
- "제진효율을 높이기 위한 현상응모를 조직하여 대중의 열의를 고조", "제진설비, 조사장악하고 대책하기 위한 비상설분과를 조직하고 활발히 운영 … 설비정지시간을 이용하여 제진설비들의 성능을 회복 진행"

o "연합기업소에서는 제진설비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설비 부분품들을 원만히 확보해놓고 소성계열대보수기간에 이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

- "전기제진기의 극판들을 교정하고 탈진 망치들을 새로 제작 설치, 제진효율을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들도 해결", "조습탑의 먼지잡이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 … 현존 물펌프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물분사노즐을 개조할 수 있는 기술방안을 확정하고 실천에 옮기어 성과"
- "기류 안내판과 분배판 … 정비 보강, 공업용수 관로에 여과기를 설치 … 조습탑의 제진효율을 제고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도 원만히 해결"
- "조습탑의 출구온도를 떨구고 전기제진기의 성능을 제고 … 제진효율, 훨씬 끌어올리어", "선진기술을 활용, 개발한 미량원소첨가제를 도안의 많은 농장들에 도입, 농작물의 생육을 좋게 하고 알곡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담보 마련"

o "환경보호사업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안아올 일념 밑에 제진효율을 더욱 높이고 통합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1 개 요

o 북한은 의료교육체계 혁신 및 지방 의료일군 기술전습 추진 보도(8.13. 노동)

- (교육혁신) △(본과) "교육체계·기구·방법 개선" △(박사원) "새롭게 세워진 전문과의사양성체계 과정안 정확히 집행" △(재교육) "내용·방법 갱신" 등
- (기술전습) "지난 2월부터 11개의 중앙급병원과 3개 시·군병원들에서 올해 새로 건설되는 20개 군(구역) 의료일력 480여 명을 대상으로 기술전습 진행"

o '보건현대화' 구상 하 의료교육 개편 등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추진

- 20개 지방병원 건설에 따라 의료인력 양성 및 실무역량 제고 노력 지속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3. 노동)

o "의료교육체계를 혁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 "당 제9차 대회는 의료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혁명적 대책을 취해 의료일군대열을 늘리도록 할 데 대하여 강조"
- "평양의학대학에서 새로운 학과들을 내오고 정리하는 사업을 비롯 교육구조 혁신, 교육강령 갱신", "지능화·정보화 의료봉사방식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개선", "이론교육과 외국어교육 강화", "풍부한 임상경험"
- "각지 의학대학의 박사원에서는 보건부문에 새롭게 세워진 전문과의사양성체계에 따르는 과정안 정확히 집행"
- "현직 보건일군 재교육체계 강화, 임상기술수준과 학술적 자질 향상", "각 도 보건직업기술학교들에서 직업기술교육 강화, 기술기능인재 양성", "교육자들의 자질향상과 교육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o "올해 새로 건설되는 20개 군(구역)병원 의료일군들에 대한 기술전습 심화"

-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480여 명의 군(구역)병원 의료일군들을 대상으로 평양종합병원과 김만유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을 비롯한 11개의 중앙급병원들과 새로 일떠선 3개 시·군병원들에서 연 2만여차 이론강의, 10여만차의 실천실기실습이 진행"

한미연합훈련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1 개 요

o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8.14. 하반기 한미연합훈련(UFS, 8.17.-27.) 관련 첫 공식 입장 발표(8.14. 노동·중통)

o 한미연합훈련은 "침략전쟁시연"으로 "지역 안보환경 위협" 주장 하 "단호한 정당 방위권 행사" 강조

- "미한이 《년례적》, 《방어적》이라고 강변하는 이번 연습이 본질상 침략전쟁시연이라는것을 자인", "조선반도와 지역 안보불안정 유발"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핵동맹 변이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 "한일의 군사력 확충" 등 역내 안보위협도 부각

- 이에 대응해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 적용", "책임적이고 단호한 정당 방위권 행사로 대적입장 보다 명백히 표현" 등 언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4. 노동·중통)

o "미국과 한국이 8월 17일부터 대규모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가 시작된다는 것을 공식 발표"

o "미한이 이른바 《년례적》, 《방어적》이라고 강변하는 이번 연습이 본질상 침략전쟁 시연이라는 것을 자인"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핵동맹으로 변이되고 있는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와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확충은 《을지 프리덤 쉴드》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보다 부각"

- "도발적성격과 위험성이 지난해와 또 다르게 격상된 적수국들의 침략전쟁 연습으로 우리 국가의 안전령역과 지역의 안보환경에는 엄중한 위협 조성"

o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원칙",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 행사로 우리의 대적립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

광복('조국해방의 날') 81주년 관련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8.15 광복('조국해방의 날') 81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8.15.-17. 노동·중통)

- (김정은 위원장) △8.14. 혁명열사릉, 항일혁명열사 추모비(애국열사릉 내), 해방탑 방문 △8.16. 교예공연 관람 및 기념촬영, 수영·다이빙 경기 관람

  * △리설주 및 김 위원장 딸, 전 일정 동행 △김 위원장 딸, 8.15 계기 행사 최초 참석

- (행사) △8.14. 간부 만수대 동상 참배,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애국열사릉 방문 △8.15. 야회·축포발사, 무도회, 횃불컵축구경기 등 △8.13.-14. 근로단체 행사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축전(8.14.), 김 위원장 답전(8.15.) △주북 러시아 대사관 연회(8.13.) △주러 북한 대사관 연회(8.14.) △러시아 교육실습용 돛배 <빨라다>호, 원산 친선방문(8.15.-17.) 등

- (외국 정상) △나이지리아·팔레스타인 화환 △팔레스타인·니카라과 축전

- (보도) △8.15.『노동신문』사설 △백두산 기행·혁명전우관 참관기 연재 등

o 예년(비정주년) 수준으로 경축, 항일투쟁사를 조명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

- 김 위원장 △항일혁명열사 추모비에 최초 방문, 항일선열에 대한 추모 강화 △8.15 계기 공연·체육행사 관람, 경축 분위기 고조

- 8.15 해방을 '자주 정신의 승리'로 선전하며 '백두산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의 부강번영을 위해 분투해 나갈 것을 독려

o 러시아 측과의 축전 교환 및 친선행사를 통해 북러 밀착관계 과시

- 다만, 푸틴 대통령 축전이 "전례없이 높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한 데 비해, 김 위원장 답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표현 없음.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5.-17. 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 대성산혁명열사릉 및 항일혁명열사 추모비 방문(8.15. 노동·중통)

– "첫 세대 혁명가들의 견결한 자주 정신과 불멸의 공적은 후손 만대에 이어가야 할 사상정신적 재보이며 고귀한 혁명유산"

- “백두의 혁명전통을 창조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준 조선혁명의 개척세대가 승승장구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과 더불어 가장 높은 명예와 존엄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기원”

o 김정은 위원장, 해방탑 방문(8.15. 노동·중통)

- “조로 사이의 훌륭한 력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량국 친선협조관계의 근본 초석으로, 무진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음.”
- “숭고한 리념과 진정한 전투적 우의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위대한 친선단결은 전면적 개화의 새시대와 더불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할 것”

o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귀중한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분투해 나가자”(8.15. 노동 사설)

- “8.15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81년은 자력, 자강의 억센 힘으로 자기 식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해 온 긍지높은 로정”
- “혁명의 첫 세대들이 발휘한 충실성의 전통을 영원한 피줄기로 삼고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
- “백두산정신은 영원한 조선의 정신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야 할 우리 혁명의 제일가는 재보”

o 러시아 푸틴 대통령 축전(8.15. 노동·중통)

- “오늘날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는 전례없이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에 올라섰음.”
- “우리 국가들은 모든 방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일치시키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가 로씨야와 조선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정의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절박한 쌍무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

o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답전(8.16. 노동·중통)

- “나는 조로관계를 당신과 함께 인도하여 량국관계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확고히 내다볼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항시 자긍스럽게 여기고 있음.”
- “형제적인 로씨야 군대와 인민이 당신의 현명한 령도 밑에 나라의 주권과 안전리익,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성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재심 표명”

o 김정은 위원장,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8.17. 노동·중통)

- “교예예술 특유의 감화력으로 사회주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온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

체육경기 대회 관련 보도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제11차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 경기 소식 및 성과 보도(8.15. 노동·중통)

* △(장소) 몽골 △(일정) 8.3.-9. △(성과) 메달 99개, 우승컵 3개

- 동 경기에서 북한은 성인·청년 여자 단체특기경기 및 성인 여자 단체위력경기에서 각각 1위로 우승컵 획득, 그 외 99개 메달(금메달 75개 포함) 획득

o 또한 △전국태권도애호가경기-2026(8.9.-14.) △홰불컵축구경기(8.15.) △제62차 전국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7.15.-8.15.) 경기 소식 보도(8.15.-16. 노동·중통)

o 북한은 국내·외 체육경기 대회 개최 및 성과 소식을 노동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체제 결속력 제고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5.-16. 노동·중통)

o “제11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3개의 종합우승컵과 75개의 금메달 쟁취”(8.15. 노동·중통)

- “우리 선수들은 75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99개의 메달과 3개의 부류별종합우승컵을 쟁취”, “14일 평양역에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체육부문,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가족들이 뜨겁게 맞이”

o “전국태권도애호가경기-2026 진행”(8.15. 노동·중통)

- “9일부터 14일까지 태권도전당에서”, “이번 경기는 각지에서 선발된 1,00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 근로자들이 참가”, “우리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수련하는 나날에 연마하여온 육체기술적 능력과 고사한 경기도덕품성을 남김없이 발휘”

o “대동강팀과 홰불팀사이의 홰불컵축구경기 진행”(8.16. 노동·중통)

- “조국해방 81돐을 맞으며 대동강팀과 홰불팀사이의 홰불컵축구경기”,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 … 평양시민들이 경기를 관람”, “이날 경기에서는 대동강팀이 상대팀을 4:0으로 이김.”

o “제62차 전국 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 진행”(8.16. 노동·중통)

-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평양시와 평성시, 사리원시, 원산시, 개천시 등에서”,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육상, 권투를 비롯한 20여개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

김정은 위원장, 광복('조국해방') 81년 국립교예단 공연 및 수영경기 관람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8.16. 평양교예극장에서 광복('조국해방') 81년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8.17. 노동·중통)

* 참석 :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 위원, 당·정부 간부들, 항일혁명렬사, 반일애국렬사 유자녀들, 혁명학원 교직원·학생들, 성·중앙기관·무력기관 일군들, 시안의 공장·기업소 일꾼, 로력혁신자들, 청년학생들

** 진행 : 환영곡 → 김 위원장 축하인사 → 국가 주악 → 종합교예 공연 → 국립교예단 창작가·예술인 일꾼들과 기념사진

- (공연) △체력교예 《쇠바줄타기》, 《날으자 더 높이》 등 △요술 작품들

* <이돌-2026> 세계교예예술축전(5.30.-6.7., 러시아)에서 체력교예 <쇠바줄타기> 최고상 수여(6.14. 노동)

- (김정은) △"교예예술 특유의 감화력으로 사회주의 문화발전에 기여해온 국립교예단에 공로 치하" △국립교예단의 창작가·예술인들과 사진촬영

o 아울러, 8.16. '수영 및 물에뛰여들기 경기'도 관람(8.17. 노동·중통)

- △남녀 100m 자유영·평영, 혼성혼영계영 등(6개 단체 참가) △물에뛰여들기 경기(3개 단체 참가) △수중체조무용모범 출연 △시상식 등

o「조국해방의 날」81주년 경축 분위기 조성 및 체제 결속 제고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7. 노동·중통)

o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 81돐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을 관람"

- "조국해방 81돐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이 8월 16일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
- "공연무대에는 국제교예축전들에서 최고상을 수여받은 체력교예 《쇠바줄타기》, 《날으자 더 높이》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 "인민들과 친숙해진 요술가가 펼치는 특색있는 작품들"
- "김정은 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따뜻이 축하, 국립교예단 창작가, 예술인, 일군들을 만나"
- (김정은) "국립교예단은 지난 70여년간 세계적인 교예작품창작과 적극적인 공연

활동으로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국가의 영예와 위상을 빛내여온 관록있는 예술집단", "교예예술특유의 감화력으로 사회주의문화발전에 기여하여온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 "교예예술의 새로운 발전과 전성을 안아오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표명"

o "조국해방 81돐기념 체육문화행사 진행"

- "조국해방절을 기념하는 체육문화행사일정에 따라 수영 및 물에뛰여들기경기가 8월 16일에 진행"
- "수영경기는 6개 단체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는 남자자유영 100m경기와 평영 100m경기, 녀자자유영 100m경기와 평영 100m경기, 각각 4명이 참가하여 한 선수가 100m씩 배영, 자유영, 평영, 나비영순서로 400m를 극복하는 혼성혼영계영경기로 나뉘여 진행", "물에뛰여들기경기에는 3개 단체가 참가하여 남녀 10m고정판개인경기, 혼성 10m고정판동시경기를 진행"
- "수영경기에서는 소백수선수단이 1위를, 수산성체육단이 2위를, 수양산체육단이 3위를", "물에뛰여들기경기에서도 소백수 선수단이 종합 1위를"

신의주 온실농장에 현대적인 양묘장과 과수원건설 추진

1 개 요

o 북한은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에 현대적인 양묘장과 과수원 건설" 소개(8.18. 노동)

- "한 달 남짓한 기간에 10여 동의 건물골조공사 결속 및 내외부미장작업 추진" 등 성과 홍보

o "평안북도당위원회는 양묘장과 과수원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일떠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 박력있게 전개" 언급

- 동시에 "조직적 수완과 전개력이 있는 일꾼들로 현장지휘 역량을 꾸리고 필요한 륜전기재와 설비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 등 실무대책 마련

o "머지않아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는 인민의 이상향으로 더욱 훌륭하게 변모되게 될 것"이라며 전망 제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8. 노동)

o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에 현대적인 양묘장과 과수원이 새로 일떠서"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이 시작된지 한달 남짓한 기간에 10여 동의 건물 골조공사가 결속된 데 이어 내외부 미장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o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양묘장과 과수원을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일떠세우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세우고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전개"

- "도에서는 조직적 수완과 전개력이 있는 일꾼들로 현장지휘 역량을 꾸리고 필요한 륜전기재와 설비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강구"

- "도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장마다 힘있는 글발들이 새겨진 대형 속보판들을 게시하고 기백 넘친 경제선동 활동을 박력있게 조직전개"

o "정주시와 운산군, 삭주군대대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양묘장건설에 앞서나가"

o "도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머지않아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는 인민의 이상향으로 더욱 훌륭하게 변모되게 될 것"

박태성 내각총리 희천정밀기계공장 등 현지요해

1 개 요

o 박태성 내각총리는 희천정밀기계공장과 전천착암기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등 기계공업·경공업 부문의 공장들을 현지요해(날짜 미보도, 8.18. 노동·중통)

- 생산품의 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생산·경영관리 개선 및 선진기술의 적극 도입, 설비·노동능률을 높일 것을 강조

o 북한은 새 5개년 계획을 '안정공고화'와 '점진적 질적 발전' 단계로 규정하며, 공업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 통한 공업 생산액 증대, 생산품의 질 제고 목표

* "생산물의 질은 생산공정·설비 현대화와 원료·자재, 생산자의 기술기능 수준에 의존"(제15기 1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26년 3월)

- 향후에도 △선진기술 연구·도입 △공정·설비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품의 질 향상을 목표로 관련 공업 부문을 지도·독려 지속 예상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8. 노동·중통)

o "내각총리인 박태성 …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

o "희천정밀기계공장에서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다같이 제고 언급"

- "과학기술을 단위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생산과 경영관리를 더욱 개선하는 것과 함께 선진기술에 기초한 창의고안들 적극 도입 강조"

o "전천착암기공장에서 착암기에 대한 수요가 증대에 맞게 설비이용률을 높여 맡겨진 생산계획 어김없이 수행"

- "성능 높은 새형의 착암기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 진행 지적"

o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기술기능수준을 제고, 설비에 정통하여 노동능률을 높임으로써 생산성과 부단히 확대 강조"

o "현지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새 기술 습득과 도입, 새 제품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해줄 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대책"

o "앞서 박태성 동지는 소금공업국을 찾아 생산실태를 요해"

김여정 부장,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관련 입장 발표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국제 현안 관련 입장 발표(8.19. 중통)

- △최근 국제정세 진단 △북한의 대응 원칙 △북한 군인의 러시아 추가 파병설 반박 △일본 재군사화 경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관련 입장 등

o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 표명의 형식으로 발표되었으나, 사실상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제스쳐에 대한 응답 성격으로 평가

- 북한은 한미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개별적 훈련의 축소·단축"으로 평가 절하
- △북미 정상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 "워싱턴발 소식"으로 한정하며 모호한 입장을 시현 △단, 양 정상의 개인적인 우호 관계 부각
-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 군인의 러시아 파병설은 "사실무근"으로 반박 △최근 일본의 '재무장화' 시도에는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9. 중통)

o "조선반도 지역에서도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지정학적 팽창 시도와 과욕적 무력 증강", "최대의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현실에 립각하여 강력한 힘의 립장에서 위험을 제거"

o "며칠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발표한 미한합동군사연습축소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음",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여 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 "미국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그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 보려고 타산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임."

o "최근 조미 량국 지도자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워싱톤발 소식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며 아마도 우리 최고지도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임."

o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함.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별로 놀랄만한 일은 아님."

o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변하지 않아 왔고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은 오늘 현재 이 순간도 적대적인 대조선군사활동을 맹렬히 벌리고 있음.”

o “젤렌스끼 패당이 퍼뜨린 우리 군대의 《추가파병》설은 전혀 사실무근한 끼예브의 자작극”, “공화국과 로씨야 련방 사이의 제반 협력, 주권적 권리 행사의 합법적 령역”, “동맹적 성격에 부합되게 동맹체약국으로서의 의무에 공화국은 항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으며 무한히 책임적임”

o “아태지역에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위험요소인 일본의 무분별한 군사적 팽창시도를 잠재적이며 전망적인 위협으로 주시”, “일본이 잘못된 선택을 기도한다면 이제는 즉시적이며 생존불가한 섬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것”

한미연합훈련 관련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1 개 요

o 북한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UFS) 관련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발표(8.19. 노동·중통)

* 외무성 대변인 담화(8.14.)에 이어 두 번째 반응

o 한미연합훈련은 "침략전쟁연습"으로 "지역 안보 위협" 주장 하 "자위적 권리행사", "새로운 힘으로 대응" 강조

- "우리 국가와 지역에 노골적인 위협", "공화국의 안전권에 엄중한 위해 조성" 주장
- "유엔사 역할 확대", "다국적 무력 투입", "실전성 제고" 등 이전과의 차별성도 부각
- 이에 대응해 북한은 "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자위적 권리행사는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 입장 표명

o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8.16.) 이후 첫 북한 반응으로 훈련축소 언급 없이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평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9. 노동·중통)

o "우리 국가와 지역의 안보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으로 되는 미한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가 17일부터 강행"

o "미한의 군부 호전광들은 또다시 《연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설명을 덧붙이며 미한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도발적 본질을 무마"

- "제반 구성요소들은 진화를 거듭, 대조선 전쟁연습의 실전성 제고와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보구도에서 우위를 선점하는데 필사적으로 지향"
- "보조적 역할을 놀던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이번 연습을 기회로 전투기능 부활, 역할 확대에 본격 시동", "《유엔군》의 모자를 도용한 사상 최대 규모의 다국적 침략 무력의 실전투입을 기정사실화"

o "적들의 위협을 철저히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권리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 "진화되는 적수들의 위협적 행동에는 진화된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

《전국준법교양자료전시회-2026》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8.17.-21. 《전국준법교양자료전시회-2026》를 진행(8.18., 8.22. 노동·중통)

o 과학기술전당에서 개·폐막, "준법기풍확립의 선풍을!"이라는 주제로 60종 4,000여 점의 준법교양자료 및 수단 출품

- 개막사 및 폐막사를 통해 "혁명적 준법기풍확립은 사회주의법률제도의 강화를 위한 중요 담보"라는 점 강조
- 한편, 함흥편직공장 1가공 직장장 자아비판 수기 및 해주시출판물보급소 모범사례 등 기사 게재, 직장 내 준법교양 강화 방안 제시(8.18. 노동)

o 최근 사회주의생활양식·규범, 준법교양 등에 대한 중요성 강조

- 법·제도 기반으로 규율·질서 관리 강화 시사

* (제9차 당대회) "적시적·합리적으로 부문법 제정·수정·보충", "전국가적, 전사회적 법무해설 강화", "혁명적 준법기풍 확립" 과업 제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8., 8.22. 노동·중통)

o "《전국준법교양자료전시회-2026》 개막"(8.18. 노동·중통)

- "올해 위원회, 성, 중앙기관, 각 도들에서 진행된 준법교양자료전시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60여종에 4,000여점의 준법교양자료와 수단들 출품"
- (김형식 개막사) "혁명적 준법기풍확립의 선풍,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 "준법교양의 형식과 방법을 보다 혁신하고 혁명적준법기풍확립을 위한 사업에 활력을 부어주는 계기"

o "《전국준법교양자료전시회-2026》 폐막"(8.22. 노동·중통)

- (김형식 폐막사) "전체 참가자들, 공화국법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 준법교양의 직접적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역할 강조"

o "법무해설원의 임무를 자각하기까지", "준법교양의 실효성을 높여"(8.18. 노동)

- "법무해설원의 사업에서는 요령주의, 형식주의가 있어서는 안돼", "해주시 출판물보급소, 준법교양계획 현실성있게 구체적으로 세워 교양사업 진행"

청년들의 애국적 소행 및 성과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이후 사회주의 건설 과업의 달성을 위한 평양 청년들의 적극적인 탄원·진출을 선전(8.19. 노동)

- 청년들을 "미더운 청년전위"로 치켜세우며 각 청년돌격대 및 직장들로 진출한 청년들의 성과를 "애국청년"들의 애국적 소행으로 과시(8.23. 노동·중통)

o 한편, 시·군청년동맹위원회의 기능·역할 강화를 위한 시·군청년동맹위원장 강습(8.17.-20.)을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8.21. 노동·중통)

- △사상교양사업 심화 통해 동맹 내 규율·기강 확립 △소년단조직 역할 개선 △청년돌격대활동 활발히 조직전개 △반사·비사 현상 척결 투쟁 등 논의

o 청년절(8.28.)을 앞두고 석탄공업부문 성과 확보, 탄광마을 개변 등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노력 분위기 조성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19., 8.21., 8.23. 노동·중통)

o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이후 청년들속에서 탄원열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음."(8.19. 노동)

- "만경대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 락랑구역, 화성구역의 청년들 송전건설사업소, 평양화력발전소 등에 보내줄 것을 청년동맹조직에 제기", "덕천시, 개천시, 북창군, 문덕군, 대동군의 청년들 서부지구탄전에 삶의 좌표를 정함" 등

o "당의 품속에서 끝없이 빛나는 애국청년의 고귀한 영예"(8.23. 노동·중통)

-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등탄광 김광철청년돌격대 대원, 청년돌격대가 3년분 인민경계획을 완수하는데 이바지", "지난 4월 뜻밖의 정황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쳐 동지들을 구원한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회안청년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 처녀돌격대원의 소행" 등

o "시·군청년동맹위원장강습 진행"(8.21. 노동·중통)

- "전 동맹안에 엄격한 규률과 기강을 확립", "동맹조직사상생활을 정규화, 규범화", "소년단조직들의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데서 실제적인 개선"

김여정 부장,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 대남 담화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비난 담화(8.20. 중통)

-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등 우리의 환영 입장을 원색적으로 비난

o 향후 북미대화 진전 과정에서 우리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견제 의도 평가

- 북미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기대감을 불식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0. 중통)

o “돌연 훈련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 “국가안보가 통째로 흔들리는 나라”, “<미한혈맹>의 주종관계 구도를 그려줌”

o “이번 돌발사태는 상전에 대한 맹신에 빠져 핵보유국이 관제하는 지역의 력학구도를 바꿔보겠다고 쉼 없이 설레발을 치던 한국 당국의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망상과 안보관이 초래한 응당한 참사”

o “서울위정자들이 상전의 무시를 당한 저들의 민망스러운 처지를 가리워보려고 그 무슨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계기》니, 《관계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니 하며 딴전을 피우고 있지만 누가 보아도 궁색한 변명”

o “트럼프의 《연습축소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 앉아서는 《최악의 씨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확보》를 운운한 리○○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o “이 기회에 철두철미 예속적인 자기의 처지나 제대로 학습하고 생존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듬”, “올데갈데 없는 《괴뢰》의 숙명적 처지를 이제는 스스로 알 때도 되었음.”

남포시 다락식주택구 2단계 공사 추진

1 개 요

o 북한은 남포시 다락식주택구(계단식 주택단지) 1단계 공사 마감, 2단계 공사 추진(8.20. 노동)

- 남포시에 △수백 세대의 소층·다층 살림집 △도로공사 △잔디심기 △봉사망 개건 △옹벽쌓기(옹벽 축조) 작업 등 1단계 공사 결속
- 2단계에서는 수백 세대 살림집 골조 공사, 걸음길 공사(보도 정비공사) 및 원림경관 조성 사업도 진행, 최종적으로 항구도시에 천여 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될 예정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0. 노동)

o "남포시에 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어"

- "1단계 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남으로써 수백 세대의 소층, 다층 살림집들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경관을 이루며 조화롭게 일떠서고 도로공사와 잔디심기, 봉사망개건 등이 진행되어 항구도시의 면모가 새롭게 일신"
- "현재 방대한 기초공사와 옹벽쌓기 작업이 결속된 2단계 공사현장에서는 수백 세대에 달하는 살림집 골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진척"

o "항구도시의 입구에 일떠서는 다락식주택구에는 천여세대에 달하는 소층, 다층살림집이 건설"

- "시의 책임일꾼들은 강력한 건설 역량을 편성하고 시공 지도를 강화하는 등 공사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공적으로 조직 전개"
- "1단계 공사에 이어 벌어지는 2단계 공사는 수백 세대의 살림집을 또다시 건설하고 걸음길 공사, 원림경관 조성 등을 진행"
-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품이 많이 드는 옹벽쌓기작업과 산중턱에서의 기초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낸 기세드높이 골조공사에 진입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
- "현장 지휘 일꾼들은 성과가 확대될수록 시공의 질 보장을 첫 자리에 놓고 공사 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전개"

o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데 대한 당정책관철",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항구도시의 면모는 날을 따라 일신"

표준탄광 건설을 위한 전국 현상응모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표준탄광 건설을 위한 전국 현상응모(공모전) 진행을 선전(8.20. 노동)

- "표준탄광건설과 과학기술" 주제 하에 기계화·정보화를 위한 각 연구기관*의 기술 제안 공모전 개최

  * 김일성종합대학·정보산업성·국가과학원·김책공업종합대학·천성청년탄광 등 연구·생산기관 및 연관단위 종사자 수백 명 참가

- △(기계화) 탐사 및 갱 건설, 갱도 유지관리, 채탄작업, 운반계통 등 생산 기술 소개 △(정보화) 전력공급계통, 피동빛망기술(광통신)을 통한 지휘통신체계 확립 등 갱내 작업 유지관리 기술 제안

- 또한, 현행 석탄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컨베이어벨트 운영기술 개선·신규 탄차 도입 등 제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0. 노동)

o "천성청년탄광을 … 표준탄광으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기술혁신 현상공모가 진행"

- "《표준탄광건설과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현상응모", "김일성종합대학, 정보산업성,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천성청년탄광을 비롯 … 연관단위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설계원, 기능공 등 수백명이 참가"
- "탐사, 갱 건설, 및 갱도 유지관리, 채탄작업의 기계화, 운반계통과 수단들에 대한 감시 및 조종, 생산환경 개선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제안들이 나와"
- "탄광 전력공급계통 전력관리 및 전력계통 보호 수자화, 피동빛망기술에 의한 갱내 지휘통신체계 확립을 비롯, 탄광의 정보화 실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 착상들과 과학기술안들을 내놓아"
- "현행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과학기술안들도 … 제기", "벨트운영을 개선하는 기술, 자체밀부림식 탄차 등"

전국 당간부 양성부문 교원 강습회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8.19.-20. 평양에서 전국 당간부 양성부문 교원 강습회를 개최(8.21. 노동·중통)

* 참석 : △당 중앙간부학교 등 각급 당학교 일꾼·교원·연구사
△당 중앙위원회 및 도·시·군 당위원회, 직속당학교 지도 당위원회의 해당 일꾼

* 진행 : 개강사(주창일 당 중앙위 비서) → 국가 주악 → 각급 당학교 사업정형 총화보고(최창학 당 중앙위 제1부부장) → 강의 → 김정은 위원장 앞 맹세문 채택

- 당간부 육성 사업을 "천사만사중의 첫 자리"라고 강조하며 교원·일꾼들의 사상 무장과 책임의식 및 역할 제고를 독려
- 유일영도체계 강화, 인민관 및 전문가적 자질 배양 등을 중심으로 간부 교육 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1. 노동·중통)

o "전국의 각급 당학교의 교원들과 일군들을 당중앙의 독창적인 당간부 육성 사상과 방침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교육실무적, 정신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시킴으로써 당의 간부 진영 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

o (사업총화 보고) "지난 시기 일부 당학교들에서 발로된 일련의 결함들이 지적되였으며 그 주되는 원인이 엄정히 분석"

– "전당 강화와 전면적 국가 부흥의 역사적 대업을 믿음직하게 떠메고 나갈 쟁쟁한 당간부 인재, 붉은기사상이 몸에 배인 열정적인 후비 간부들을 더 훌륭히, 더 많이 키워나갈 데 대하여 강조"

o (강의)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창립 80돐에 즈음하여 하신 연설의 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

–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사업을 당간부 양성 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갈 데 대한 문제"

– "학생들을 우리 당의 인민관을 체질화하고 전문가적 자질을 소유한 진짜배기 일꾼으로 준비"

– "당학교들에서부터 앞선 교육내용과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도입하고 교육행정 관리사업을 개선하여 나라의 전반적 교육 발전을 힘있게 추동"

– "새시대 당간부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서 당학교 교원들과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일 데 대한 문제"

자기 지역 특색을 살린 지방공업공장 개발 제품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전국 40개 시·군에 건설된 지방공업공장(식료·일용품·옷 공장)들에서 지역 특색을 살려 개발한 제품이 주민들에게 인기이며, 수요가 증가함을 선전(8.21. 노동)

- 식료·일용품 공장은 산, 바다 등 자기 지방의 원료로 제품 생산, 주민들의 호평

* 식료공장 : 김정숙군(산나물절임), 김형직군(호박씨기름), 낭림군(감자전분), 신양군(도토리 단졸임), 신포시(다시마차), 재령·배천군 등(가래떡), 경성군(물엿, 고추장), 장풍군(생강 가공품)

** 일용품공장 : 장풍군(창포 이용 빨래비누), 우시군(수세미오이향 빨래비누), 함주군(주판), 개풍구역(왕골(풀) 이용 생활용품), 성천군(플라스틱 의자), 염주군(검은돌 공예품), 온천·우시군(플라스틱 파이프)

- 옷 공장은 자기 지역의 기상조건과 주민들의 기호에 맞게 생산, 타지역 주문도 증가

* 고산군(남자솜옷), 숙천군(피복제품), 구성시·재령군(다른지역 주민들도 주문)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1. 노동)

o "지역 특색이 살아나는 제품의 가짓수를 늘려 …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에서"

-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의 고귀한 실체로 전국의 40개 시·군들에 새로 일떠선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자기 고장의 얼굴이 살아나는 특산품들을 더 많이, 질 높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져"
-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이용할 데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 자기 지방의 원료에 의거한 특색있는 식료품 개발과 생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어"
- "김정숙군의 식료공장에서 지역에 흔한 산나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품들을 만들어 상업망들에 보내주고 … 수요가 날로 높아가"
- "김형직군에서도 공장에서 개발한 호박씨 기름은 여러 가지 질병에 특효인 것으로 하여 군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즐겨 찾는 제품"
- "낭림군 식료공장에서는 감자를 가지고 질 높은 분탕을 생산, 신양군의 식료공장에서는 다래단졸임, 도토리단졸임을 특산품으로 내놓아"
- "신포시 식료공장에서는 다시마차를 개발 … 재령, 배천, 숙천, 염주군의 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떡국대들도 해당 지역의 특산품으로 사람들의 호평"

- “함주, 금야군의 수산물가공품들과 온천, 숙천군의 수산물가공품들은 동, 서해의 물고기, 조개류, 바다나물들을 특색있게 가공, 포장한 것으로 하여 수도의 여러 상업봉사망에서도 시민들의 인기를 모아”
- “구기자 산지로 알려진 경성군 식료공장에서는 자기 고장의 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물엿, 단묵, 과장, 단물, 고추장 등을 생산”
- “장풍군 식료공장에서는 군에서 널리 재배되는 생강과 분지를 이용하여 갖가지 특색있는 식료품들을 개발 생산”
- “장풍군 일용품공장에서는 자기 지방에서 널리 자라는 창포를 이용하여 기능성 빨래비누를 생산 … 우시군 일용품공장의 수세미오이향 빨래비누는 향내가 독특한 것으로 하여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
- “함주군 일용품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산은 정교하고 질이 높아 군은 물론 도안의 여러 지역 소학교학생들속에서 애용”
- “왕골이 널리 재배되는 개풍구역의 일용품공장에서는 각종 초물제품들을 생산하여 개성시와 전국의 여러지역에 보내”
- “성천군 일용품공장의 수지의자와 염주군 일용품공장의 검은돌공예품에 대한 인기도 해당 군의 경내를 벗어나 여러 지역에로 확대”
- “온천군, 우시군을 비롯 일용품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지관들은 질이 높은 것으로 하여 지방건설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들로부터 주문도 받아”
- “40개 시·군들에 새로 일떠선 옷공장들에서 자기 지역의 기상조건과 주민들의 기호에 맞는 옷제품들을 독점지표로 정하고 그 가짓수를 늘리는 사업 전개”
- “전국적인 전시회에서 높이 평가된 고산군 옷공장의 남자솜옷과 중앙의 옷제작 단위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숙천군 옷공장의 피복제품들”
- “자기 고장 주민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주문이 그칠 사이 없는 구성시, 재령군 옷공장의 옷가공 기술이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어”
- “자기 고장의 특색이 살아나는 제품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을 단위발전과 지역의 경제발전, 주민생활 향상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음”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진행 예고

1 개 요

o 북한은 9월초 평양에서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진행 예고(8.23. 노동)

* 교육절(9.5.) 즈음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14.9.5.), 제14차 전국교원대회('19.9.3.) 개최

o 제2차 교육강령 안착을 위해 교원역량 강화·교육여건 개선 등을 지속 강조하는 가운데, 대회를 통해 교육정책 집행상황 점검 및 후속 과제 논의 예상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2.-23. 노동)

o "교원자질향상과 재교육단위들의 역할"(8.22. 노동)

- "제2차 교육강령 집행으로 교원재교육단위 역할이 더욱 부각", "당 제9차 대회, 교원재교육단위들에서 교원 자질과 실무능력 제고 중요하게 강조"
- "교원 재교육사업에는 원격형식, 등교형식이 있음", "원격재교육은 어느 지역에서나 망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으며 중앙에서 진행하여 수준이 높음, 자기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 선택할 수 있게 필요한 강의물 구축"
- "교육일군은 그간 자기 전공분야에 해당한 재교육", "새 교육강령 집행은 교육실무자적자질을 다방면으로 요구, 필수적 내용으로 재교육과목 구성"
- "보통교육부문 교육구조가 혁심됨으로써 선택과목들의 수준 매우 높아져", "교원재교육사업은 전문성이 높아진 해당 과목을 맡아 능히 교육할 수 있게 과학이론적 자질과 교육 실무적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중점"

o "교육전시회에서 중시한 문제"(8.22. 노동)

- "중구역, 교육실험기구와 교편물제작에 대한 교육자 관점·태도부터 혁신", "이번 전시회 출품건수, 전례없는 기록", "하나의 실험기구, 다용도화 실현"
- "현대적인 실험실습 조건과 환경개선의 성과여부가 교육사업을 책임진 일군들과 교원들의 관점과 태도에 적지 않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줌"
- "지역마다 조건과 환경이 다르고 경제적 잠재력이 각이해도 교육일군 대열만 튼튼히 준비된다면 당의 교육방침 관철에서 차이가 생길 수 없음"

o "제15차 전국교원대회가 진행된다."(8.23. 노동)

-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교육발전목표를 달성하며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는 속 진행"
- "지난 7년간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정형 분석총화, 교육사업 혁신 위한 실천적 문제 토의",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제고하며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계기 될 것"

재해성 이상기후 대비 대책 촉구

1 개 요

o 북한은 8.24. 폭우·많은 비 첫 '특급경보' 발령 및 8월 말까지 장마전선 재형성 예고(8.24. 노동·중방, 8.27. 노동)

- △8.24. 신의주, 폭우·많은 비 '특급경보' 발령 및 평북·자강 집중 강수 △8.20. 부터 장마전선 재형성에 따라 8월 말까지 대부분 지역에 영향 예견

  * (폭우경보) 8.24. 신의주 "특급경보"(올해 처음), 평북·자강 일부지역 중급경보, 평북 대부분 지역과 평남·자강 일부지역 주의경보(8.24. 중방)

o 이와 관련, 재해성 이상기후 대비 대책을 지속 촉구하면서 경각심 제고

- 특히, 가을 추수철('가을걷이')을 앞두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촌 초급 일꾼의 배수관리 임무 △과학농사 기반 농업기술대책 철저 주문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4. 노동·중방, 8.27. 노동)

o "폭우·많은 비 특급·중급·주의경보"(8.24. 중방)

- "8.24. 신의주시 특급경보 발령, 8.24. 0시~14시까지 신의주에 333.9㎜ 강수, 앞으로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50㎜의 폭우를 동반한 50~80㎜ 더 내릴 것으로 예견", "8.24.까지 태천, 영변, 구장, 운산, 구성, 천마, 의주, 향산을 비롯한 평북, 자강 일부 지역에서 중급경보, 평북 대부분 지역과 평남, 자강의 일부 지역에서 주의경보, 앞으로 평북, 자강에서 50~80mm, 부분적으로 10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

o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자"(8.24. 노동)

- "올해 장마는 평년(7월 13일)보다 한주일 빨리 시작, 전반적지역들에서 자주 비와 소낙비, 국부적지역들에서는 한때 폭우와 많은 비", "7월 상순, 내륙 일부 및 동해안 국부 지역에 폭우·많은 비, 전국평균강수량은 132㎜로서 평년(60㎜)의 221%, 지난해(75㎜)의 176%, 특히 평안북도, 자강도의 국부 지역과 강남에 215~268㎜의 강우로 7월 평년강수량을 초과"

-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폭우·많은 비 경보들이 발령되는 속에 신계군에서 7월 21일 하루 동안에만도 강한 폭우를 동반한 211㎜의 많은 비가 내린것을

비롯하여 국부적지역들에서 재해성기상현상들”

- “지난 7월 말부터 약해졌던 장마전선이 8월 20일부터 남부지역에서 다시 형성, 북부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강화, 8월 말까지 대부분지역에 영향을 줄 것”
- “자기 지역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가를 거듭 따져보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 “자연재해방지사업에서의 허점은 바로 지난 시기 피해를 별로 본적이 없다고 하여 눈길을 돌리지 않는데서부터 시작”, “재해성이상기후의 위험도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절대적인 안전지역이란 있을 수 없음.”

o “재해성기후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자”(8.27. 노동)

- “재해성기상현상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농업부문앞에 나선 초미의 과업”, “농업부문 일군들은 책임감을 배가하며 올해 농사 결속할 때까지 재해성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에 만전”, “농촌초급일군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 “과학농사, 농업기술적 대책 철저 수립”

탄광마을 건설 위한 준비사업 각 부문에서 추진

1 개 요

o 북한은 탄광마을 건설을 위한 다방면의 준비사업 소개(8.25. 노동)

o "다음해 건설"에서 "성과적인 결실"을 이룩할 것을 독려·강조하며 부문별 준비사업 진행 상황 언급

- △마을 내 배치계획안 작성 마감단계 △마을 설계안 작성 본격 추진 △설비 및 건설자재 생산단위별 생산능력 요해 △철도 등 건설자재 수송능력 보장방안 탐구
- 또한, 탄광마을 건설예정지 내 철거민들에 대한 공사기간 생활보장 조치* 강구 선전

* △숙식장소 마련 △식량 및 땔감 보장 △학생·어린이 위한 교육·보육·유제품 제공 등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5. 노동)

o "탄광마을건설중앙지휘부에서 … 전국의 탄광마을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킬데 대한 … 탄광마을, 탄광도시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각 방면에서 힘있게 진척"

- "일군들은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지휘", "다음해 건설에서 성과적인 결실을 안아올 일념"
- "현재 배치계획안 작성이 마감단계 … 설계안 작성이 본격적으로 추진"
- "설비와 자재, 수송보장을 위한 작전도 주도세밀하게 진행", "설비와 건재생산단위들의 생산능력과 탄광마을 건설 지역의 철도수송능력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합리적인 보장방안을 탐구"
- "탄광마을건설지역에서 철거하는 주민들이 공사기간 생활상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 "숙식장소를 마련 … 식량과 땔감보장,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교육 및 보육, 젖제품 공급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조치들을 강구"

당 중앙위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의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8.25. 당 중앙위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8.26. 노동·중통)

* 참석 : △김정은 위원장(지도)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참가 △내각 부총리, 주요 상, 국방성 지휘관, 당 중앙위 해당 부서 책임일꾼 방청

- 대외·군사 분야 관련 언급 없이 주요 건설사업 및 경제부문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조정 및 대책안을 검토하는 한편, 건설사업 집중성 보장 원칙·방침 하달
- 현재까지의 성과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일련의 편향"을 지적하며 경제지도기관과 당 지도부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올해 과업을 반드시 관철할 것을 요구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6. 노동·중통)

o "올해 중요 정책건설대상들의 추진정형과 주요 경제부문 사업들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

- "당대회 결정 관철의 첫해부터 국가 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 … 긍정적으로 평가"
-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천에로 이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실행 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
-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 데 대한 문제가 강조"
-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의 드팀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
- "특히 중요 정책대상 건설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치"

o (김정은) "당대회 결정 집행 과정에 발로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 "이는 … 경제지도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 능력의 후과"

- "전당의 당조직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드세게 벌려나갈 데 대하여 말씀"
-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수자가 아니라 중대한 정치투쟁 과업"
- "당결정 관철의 조타를 틀어잡은 일군들이 … 올해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함"

미국 무기판매, 인권사업 관련 외무성 대변인 문답

1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대남 무기판매 승인, 북한인권 실태 기록 등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중통 기자의 질문에 대답(8.27. 중통)

o 김여정 대미 입장 발표(8.19.) 이후 8일 만에 격을 하향하여 공식 입장 표명

o 트럼프 제안에 대한 추가 언급 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불변' 주장

- 미국 무기판매, 인권문제 등을 열거하며 대북 적대정책 지속 사례로 언급

  * 대남 무기판매는 '국가안전', 인권활동 지원은 '정치적 안정' 위협으로 인식

o 북미대화를 염두, 협상 조건을 구체화하며 미국 압박 의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7. 중통)

o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과 지역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적대적 움직임을 거듭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 대답"

- "미 국무성, 현재 미군이 운용하는 가장 첨단화된 전술미사일이며 지상 목표물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1억 2,500만US$분의 《AIM-9X 사이드와인더》 공중대공중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한국에 판매 결정"

- "앞서 미국은 우리의 《인권실태》를 기록하고 대조선 정보유입에 유리한 조건 마련을 위한 《인권》 모략 활동에 수백만US$ 자금 지원 계획 발표"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영역에 새로운 위협요소를 추가, 국가사회제도에 불안정을 조성해보려는 미국의 적대적 관행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

- "미국이 새로운 대조선위협 확장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성이 높은가", "다시 한 번 우리에 항구적으로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입장 표명을 명백히 인식"

o "각이한 영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들에 엄중히, 즉시적으로 강력히 반응할 것"

평남도당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조직정치사업 추진

1 개 요

o 평안남도당위원회는 올해 목표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행(8.27. 노동)

- 도당위원회는 일꾼들을 '현대 과학기술의 소유자·선도자'로 만들기 위한 '금요과학기술학습'*을 조직하고 학습 내용에 대한 총화 및 평가 사업을 추진

  * 금요과학기술학습제도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전략 하, 당 조직이 주도하는 정례 학습모임

- 또한, 과학기술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최신 과학기술 성과자료 보급 △과학기술 성과평가 사업 △기술 역량, 인재 역량 동원·이용 사업도 전개 중

o 한편, 도 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연구 부문 단위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정책 과업 수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7. 노동)

o "평안남도 당위원회에서 도안의 일군, 당원들,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올해 목표 수행에로 힘차게 내달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나가"

-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부터가 현대 과학기술의 소유자, 선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금요과학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조직", "학습내용에 대한 인식정형을 놓고 총화와 평가사업을 잘하고 있어"
- "과학자, 기술자들의 회의를 조직하고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성원들을 높이 평가", "과학기술발전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해당 지역과 단위당 조직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
-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시·군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갈 때마다 최신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을 가져다주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때에는 평가 사업도 의의 있게"
- "각급 당조직들에서 자체의 기술력량, 인재력량을 효과 있게 동원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
- "도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연구부문의 단위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단위들이 도앞에 나선 정책적 과업수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다해나가게"

청년절 기념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청년절(8.28.)* 35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축하모임 등 기념행사를 진행(8.29. 노동·중통)

* 김일성의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결성일(1927.8.28.)을 기념하기 위해 1991.2.1. 제정

- △박태성, 조용원 등 당·정 간부들이 각지 공장·기업소·탄광·대학 등을 방문하여 청년들을 격려 △청년학생 무도회, 횃불컵 결승전 등 행사 진행

- 이외에도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 청년운동사적관 참관(8.27.)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8.27.)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8.27. 개막) 등 기타 행사 진행(8.28. 노동·중통)

o 평양시 살림집 건설·수해복구 등 주요 건설사업에서 김 위원장이 청년들의 역할과 헌신을 강조한 사례 선전(8.27. 중통)

- 청년들의 1~3년분 연간 인민경제계획 조기 완수 및 밀·보리 농사 다수확 등 성과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청년중시 사상·영도력 부각(8.28. 노동·중통)

o "당에 충직한 전위대"로서 당 9기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보위초소 △건설 △농업 △과학·기술 등 각 부문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역할과 속도전 독려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7.-29. 노동·중통)

o "당과 정부의 간부들 각지 청년들과 함께 청년절을 기념"(8.29. 노동·중통)

-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박태성, 조용원, 신영일, 주창일, 조춘룡, 안금철, 김정관, 김승두, 김덕훈 동지를 비롯한 당·정 간부들이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김일성종합대학, 평양화력발전소,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등 찾아 청년들 축하"

o "횃불컵축구경기 결속", "전국청년학생들의 남자배구결승경기 진행", "청년절 기념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8.29. 노동·중통)

o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들 27일 청년운동사적관 참관",

"27일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청년절 기념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진행", "27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8.28. 노동·중통)

o "주체혁명의 새시대와 더불어 전해갈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위대한 경륜", "청년들을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로 키워주는 은혜로운 품"(8.27. 중통)

-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청년건설자들의 애국열의와 로력적헌신", "청년돌격대원들모두가 혁신자들", "우리 청년들, 지난 10여년간 각지에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성과 이룩"

- "2012년 8월 청년절경축대회 축하문, 기념사진", "올해 국가적인 첫 행사로 청년동맹창립 80돐 기념행사 진행", "청년동맹에 김정일훈장 수여", "산세험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고 찾아" 등

o (사설) "무비의 혁명성과 애국충의심을 지닌 청년대군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이고 힘"(8.28. 노동)

- "청년들, 당에 충직한 전위대, 젊은 혁명가", "청년들의 땀과 열정, 상원의 기적, 사회주의애국탄증산운동,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실천 투쟁속에도 새겨져 있음."

- "조국보위초소로 달려나간 청년들, 조국의 존엄과 명예 수호하여야", "사회주의건설의 주요 전선을 지켜선 청년들, 사상정신·돌진력·질풍 같은 속도로 생산·증산투쟁 맹렬히 벌려", "농업부문 청년들 다수확의 돌격대", "과학자·기술자들 선진기술·첨단기술 개발"

o "아버지 원수님의 품에 안겨 영광넘친 삶을 빛내여 가는 조선청년의 긍지와 행복 끝없음."(8.28. 노동)

- "김정은 시대와 더불어 온 세상에 과시되는 조선청년운동의 전성기, 총비서 동지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가 낳은 결실"

o "전국적으로 1,800여 명의 청년들 3년분, 2년분,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 150여 개의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 올해 밀, 보리농사에서 다수확 이룩"(8.28. 노동·중통)

영국과의 외교관계 급수, 대리대사급 조정

1 개 요

o 북한은 영국과의 외교관계 급수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8.28. 외무성 홈페이지)

- 이는 영국 정부가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대상 목록에 포함한 것에 따른 대응조치로, 북한은 "외교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발표

o 영국은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이송 등을 이유로 대러시아 제재 목록에 북한의 송도원야영소를 지정 발표(5.11. 영국 외무부)

- 북한은 이를 '사실무근'으로 부정하며 외무성 대변인 입장 보도(5.15. 중통 기자 문답)

- 문명신 주영 대사 부임(4.21.) 이후 약 한 달 만에 소환(6.17. NK뉴스)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8. 외무성 홈페이지)

o "지난 5월 영국 정부는 부당하고 무근거한 구실을 붙여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치적 도발 행위를 감행"

o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미 발표한 외교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영국과의 외교관계 급수를 대리대사급으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음."

o "소환된 영국 주재 우리 나라 대사는 다른 직무에 조동되게 됨."

전국 청년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개막

1 개 요

o 북한은 전국 청년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를 개최(8.28. 노동·중통)

* △일시·장소 : 8.27. 과학기술전당 △개막사 : 백은철(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참석 : 관계 부문, 청년동맹 일군, 근로 청년 등

-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을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달성한 1,80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 자료 출품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8. 노동·중통)

o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전국 청년 과학기술성과 전시회가 개막”

- “각지 청년들이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1,800여 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출품”
- “개막모임이 27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관계 부문, 청년동맹 일군들, 근로 청년들이 여기에 참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백은철 동지가 개막사”
-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비상한 창조 정신과 애국적 열정을 발휘하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실천적 성과로 보답하려는 우리 청년들의 분발력과 자신심을 배가해주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하여”
-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전시회를 통하여 성과와 경험을 공유, 교류하면서 과학기술적 안목을 보다 넓히고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데 대하여 강조”

명사십리역 준공식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8.27.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건설된 명사십리역 준공식 진행(8.28. 노동)

* △참가 : 박훈(내각부총리), 황만복(강원도 인민위원장), 관계부문, 철도운수부문 일군들, 명사십리역 종업원들, 건설자들, 도안의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준공사 : 김하규(철도상)

- 관광여행 지원 철도역으로서 관광객 수송 및 이용편의 제고 강조

o 기존 갈마역('25년 6월 개건)과 별도로 관광철도역 건설, 관광지구 운영 기반 보강

- 김정은 위원장의 신설 철도역 현지지도(6.24.) 후 2개월 만에 준공식 개최

* 당시 '갈마관광역'에서 '명사십리역'으로 명칭 변경 확인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8. 노동)

o "천지개벽한 동해명승의 풍미를 더해주는 또 하나의 재부"

- "인민들에게 새 생활, 새 문명을 안겨주려는 당의 은정속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풍미를 돋구며 명사십리역이 현대적으로 건설"
- "해안관광도시의 특색이 살아나게 독특한 건축형식으로 건설된 연건축면적 7,000여㎡ 역사는 관광여행보장이라는 사명과 기능, 용도에 맞게 실용적으로 꾸려진 지방철도역의 표준"
- "관광역으로서의 면모와 모든 조건을 갖춘 명사십리역은 김정은 동지의 위민헌신의 결정체,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소중한 재부"
- "(연설자)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유일사령지휘체계를 확립,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며, 명사십리역 종업원들은 역사와 철길 관리를 잘하고 안내봉사를 책임적으로 하여 당의 사랑과 은정이 여행자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할 데 대하여 언급"

김정은 위원장, 중국·네팔 국경지역 산사태 관련 위문전문 전달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8.28. 중국 티베트, 네팔 국경지역 산사태와 관련하여 중국 시진핑 주석과 네팔 람 찬드라 파우델 대통령에 위문전문을 전달(8.28. 중통, 8.29. 노동)

* △8.26.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대형 산사태와 홍수 발생 △재해 발생 이틀 만에 신속하게 전문 전송

o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심심한 위문 및 빠른 회복, 안정된 생활 기원

- 중국 축전에선 △"시진핑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영도 밑에"라는 문구를 덧붙이고 △당, 정 직위를 모두 명시하며 지도자 간 연대 표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28. 중통, 8.29. 노동)

o (중국) "나는 귀국의 티베트자치구에서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고 총서기 동지와 중국당과 정부, 인민 그리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가장 심심한 위문을 표함"

-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영도 밑에 피해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평온과 안정된 생활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람"

o (네팔) "나는 귀국의 국경지역에서 산사태로 인한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하였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귀국 정부와 인민,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가장 진심으로 되는 위문과 동정을 표하면서 하루빨리 피해가 가셔지기를 바람"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8.29.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를 진행(8.30. 노동·중통)

* △김정은 위원장 주재 △7.9. 제9기 제1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개최에 이어 50여 일만

o 회의에서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와 국방성의 정치군사활동을 평가 △조직기구 개편안 토의 △주요 군 지휘관 인사 단행

- (임명)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前 국방성 고문) △국방상 김성기(前 총정치국장) △총정치국 제1부국장 유광우(前 보위국장) △보위국장 엄주호(前 공군 정치위원)
- (해임·임명) 국방상 노광철 해임, 당 중앙지도기관 소환 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임명

* △박정천 당 중앙위 위원·정치국 위원 △유광우 당 정치국 위원 △엄주호 당 중앙위 위원 보선

o 이번 회의를 통해 '군 핵심인사 단행' 및 인적 쇄신 통한 '군 기강 확립' 평가

※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8.29. 국방력 강화에 공헌한 과학자, 연구사 등 대상 국가표창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8.30. 노동·중통)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30. 노동·중통)

o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8월 29일에 진행"

-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노동당 인민군위원회와 공화국 국방성의 정치군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일련의 조직기구적 개편안들이 토의"

o "회의에서 조직문제 토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국방성 고문 박정천을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 군 보위국장 유광우를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 공군 정치위원 엄주호를 당 중앙위 위원 보선 승인"

o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요 직제 군지휘관들의 직무변동문제 심의·결정"

- "국방성 고문 박정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보선", "국방상 노광철 해임, 당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임명"
- "총정치국장 김성기, 공화국 국방상 임명", "군 보위국장 유광우를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공군 정치위원 엄주호를 군 보위국장 임명"

미국의 북한 비핵화 발언 등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1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발언과 한미일 '프리덤 에지' 발표 등에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8.31. 중통)

- 김여정 발표(8.19.), 외무성 대변인 문답(8.27.)의 연장선으로 북핵·인권·연합훈련 등 미국 당국자 발언 시마다 다양한 수위로 반응

o '핵보유국 지위' 불변을 지속 강조하며 '대북 적대정책' 철회 요구

- △'비핵화' 발언 △인권 정책 △'프리덤 에지' 거론하며 '대북 적대정책' 불변 주장
- "미국 적대정책 진화로 긴장완화 기대 무의미", "과거에 대한 허황된 집착" 등 실질적인 정책 노선의 변화가 없는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감 차단

o 대미 현안별 반응을 지속하며 '대북 적대정책' 이슈 부각 의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8.31. 중통)

o "최근 조선에 대한 미국의 대결 입장이 더욱 더 명백히 표명"

- "국무성 대변인을 비롯한 미 행정부 관계자,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 《미국의 대조선정책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다》는 입장"
- "또한 《인권유린》 문제 운운, 적대적 기도를 보다 노골화"
- "미 군부는 미일한 《프리덤 에지》를 일정대로 강행할 계획 발표"

o "트럼프 행정부의 변함없는 적대시정책을 유감없이 재확인"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 국면에서 지역의 그 어떤 긴장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

o "우리의 핵은 주권수호의 절대적 담보, 조선의 핵보유와 지속적 강화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책임적이고도 정확한 선택"

- "국가 최고법에 의해 영구화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는 미국의 《비핵화》 입장표명에 의해 약화되거나 희석되지 않음."

주요인물 동정

김정은(총비서)

- **8.8.** 창립 80돐을 맞는 국립교향악단에 축하서한 발송(8.8. 노동·중통)
- **8.8.** 창립 80돐을 맞는 국립교향악단 창작가, 예술인들과 기념사진 촬영(8.9. 노동·중통)
- **8.14.**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8.15. 노동·중통)
- **8.14.**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해방탑 방문(8.15. 노동·중통)
- **8.15.** 조국해방 81돐 축전 관련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 답전(8.16. 노동·중통)
- **8.16.** 조국해방 81돐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8.17. 노동·중통)
- **8.16.** 조국해방 81돐기념 체육문화행사 관람(8.17. 노동·중통)
-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지도(8.26. 노동·중통)
- **8.28.**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위문전문 전송(8.28. 중통, 8.29. 노동)
- **8.28.** 네팔 대통령에게 위문전문 전송(8.28. 중통, 8.29. 노동)
- **8.29.**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 지도(8.30. 노동·중통)

강순남(국방성 제1부상)

-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김덕훈(내각 제1부총리)

-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 **8.28.** 당과 정부의 간부들 각지 청년들과 함께 청년절을 기념 축하(8.29. 노동·중통)

김두일(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 **미상** 새로 개건된 청진경기장 시찰 및 체육사업 문제 토의(8.30. 노동)

김성기(국방상)

-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 **8.29.**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 참가(8.30. 노동·중통)

김성남(당 국제부장 겸 비서)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해방탑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김성철(당 부장)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김승두(당 부장 겸 비서)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5. 대동강팀과 횃불팀사이 횃불컵축구경기 관람(8.16. 노동·중통)

8.18. 제7차 전국3대혁명소조 기술혁신전시회 개막식 참가(8.19. 노동·중통)

8.24.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프로그람전시회, 교육지원전시회 개막식 참가(8.25. 노동)

8.24. 제7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 폐막식 참가(8.25. 노동)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8.28. 당과 정부의 간부들 각지 청년들과 함께 청년절을 기념 축하(8.29. 노동·중통)

김여정(당 총무부장)

8.5. "전범국 일본의선제공격능력보유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담화(8.5. 중통)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9. 주요국제문제들에 대한 입장 발표(8.19. 중통)

8.20.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 김여정 당 부장 담화(8.20. 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김유일(전력공업상)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김재룡(당 정치국 위원)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김정관(당 부장 겸 비서)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8.28. 당과 정부의 간부들 각지 청년들과 함께 청년절을 기념 축하(8.29. 노동·중통)

김정규(외무성 부상)

8.13. 조국해방 81돐 즈음 러시아대사관 임시대리대사 연회 참가(8.14. 노동·중통)

김정식(당 중앙군사위원 겸 당 제1부부장)

8.29.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 참가(8.30. 노동·중통)

김철삼(당 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김철범(지방공업상)

8.4.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2026 개막사(8.5. 노동·중통)

8.11.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2026 폐막사(8.12. 노동·중통)

김철원(최고검찰소 소장)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김하규(철도상)

8.27.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명사십리역 준공식 참가 및 준공사(8.28. 노동·중통)

김형식(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17. 전국준법교양자료전시회-2026 참가 및 개막사(8.18. 노동·중통)

8.21. 전국준법교양자료전시회-2026 참가 및 폐막사(8.22. 노동·중통)

노광철(국방상)

-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해방탑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신미리애국열사릉에 꽃송이 진정(8.15. 노동·중통)
-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기념 체육문화행사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 **8.29.**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 참가(8.30. 노동·중통)

리경일(내각 부총리)

-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리명남(국제문제평론가)

- **8.12.** 일본고위정객들의 핵보유주장과 때를 같이한 '원자력활용'정책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8.12. 중통)

리영길(군 총참모장)

-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 **8.29.**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 참가(8.30. 노동·중통)

리영철(교육상)

- **8.24.**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프로그람전시회, 교육지원전시회 개막식 참가 및 개막사(8.25. 노동)
- **8.30.**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프로그램전시회, 교육지원전시회 폐막사(8.31. 노동)

리용선(국제태권도연맹 총재)

- **8.21.** 제10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행사 참가 시 연설(8.22. 노동·중통)

리원종(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8.13. 조국해방 81돐 경축 근로단체들에서 웅변모임 진행(8.14. 노동·중통)

리일환(당 부장 겸 비서)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기념 체육문화행사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리정남(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8.24. 단천광업건설연합기업소 창립 50돐 즈음 축하문전달모임 참가 및 축하문 전달(8.25. 노동·중통)

리창대(국가정보국장)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리철만(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리호림(당 경공업부장)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15. 대동강팀과 횃불팀사이 횃불컵축구경기 관람(8.16.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리히용(당 부장 겸 비서)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신미리애국열사릉에 꽃송이 진정(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박광웅(당 부장)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15. 대동강팀과 횃불팀사이 횃불컵축구경기 관람(8.16.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박정근(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15. 대동강팀과 횃불팀사이 횃불컵축구경기 관람(8.16.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박정천(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해방탑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기념 체육문화행사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8.29.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 참가(8.30. 노동·중통)

박태성(내각 총리)

미상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보산제철소를 현지요해(8.4. 노동·중통)

미상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8.8. 노동·중통)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기념 체육문화행사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미상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8.18. 노동·중통)

미상 삼지연산악관광지구 건설과 함흥시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요해(8.25.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8.28. 당과 정부의 간부들 각지 청년들과 함께 청년절을 기념 축하(8.29. 노동·중통)

박훈(내각 부총리)

8.4. 전국가구 및 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2026 개막식 참가(8.5. 노동·중통)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신미리애국열사릉에 꽃송이 진정(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8.27.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명사십리역 준공식 참가(8.28. 노동·중통)

방두섭(사회안전상)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8.29.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 참가(8.30. 노동·중통)

백은철(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8.12. 2026년 전국학생소년체육경기대회 폐막사(8.13. 노동·중통)

8.13. 조국해방 81돐 경축 학생소년들의 시랑송발표모임 진행(8.14. 노동·중통)

8.20. 대학생 청년들의 어은혁명사적지 답사행군 출발모임 참가(8.21. 노동·중통)

8.27.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사(8.28. 노동)

8.28. 전국청년학생들의 남자배구결승경기 참관(8.29. 노동)

서창렬(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8.2. 남포학생소년궁전 새로 건설 준공식 참가(8.3. 노동·중통)

신영일(당 부장 겸 비서)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15. 대동강팀과 횃불팀사이 횃불컵축구경기 관람(8.16.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8.28. 당과 정부의 간부들 각지 청년들과 함께 청년절을 기념 축하(8.29. 노동·중통)

신홍철(러시아 주재 대사)

8.14. 조국해방 81돐즈음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연회 마련(8.17. 노동·중통)

안금철(당 부장 겸 비서)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15. 대동강팀과 횃불팀사이 횃불컵축구경기 관람(8.16.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8.28. 당과 정부의 간부들 각지 청년들과 함께 청년절을 기념 축하(8.29. 노동·중통)

엄주호(보위국장)

8.29.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 참가(8.30. 노동·중통)

유광우(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8.29.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 참가(8.30. 노동·중통)

장금철(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

8.12. 아태안보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부상한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좌초를 면치 못할것이다(8.12. 중통)

전승국(내각 부총리)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8. 제7차 전국3대혁명소조 기술혁신전시회 개막식 참가(8.19. 노동·중통)

8.24.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프로그람전시회, 교육지원전시회 개막식 참가 (8.25. 노동)

8.24. 제7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 폐막식 참가(8.25. 노동)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8.30.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프로그램전시회, 교육지원전시회 폐막식 참가(8.31. 노동)

전향순(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8.13. 조국해방 81돐 경축 근로단체들에서 웅변모임 진행(8.14. 노동·중통)

전현철(내각 부총리)

-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정경택(당 부장 겸 비서)

-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신미리애국열사릉에 꽃송이 진정(8.15. 노동·중통)
-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기념 체육문화행사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 **8.29.**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 참가(8.30. 노동·중통)

조용원(당 조직지도부장 겸 비서)

-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해방탑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기념 체육문화행사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 **8.28.** 당과 정부의 간부들 각지 청년들과 함께 청년절을 기념 축하(8.29. 노동·중통)

조춘룡(당 부장 겸 비서)

-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 **8.28.** 당과 정부의 간부들 각지 청년들과 함께 청년절을 기념 축하(8.29. 노동·중통)
- **8.29.**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 참가(8.30. 노동·중통)

주창일(당 부장 겸 비서)

8.7. 국립교향악단창립 80돐 기념보고회 참가(8.8. 노동·중통)

8.8. 김정은 위원장, 창립 80돐 맞이 국립교향악단 창작가, 예술인들과 기념사진 촬영시 동행(8.9. 노동·중통)

8.8. 국립교향악단의 공로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국가표창 수여(8.9. 노동·중통)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해방탑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기념 체육문화행사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8.18. 혁명사적지건설국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8.19. 노동·중통)

8.20. 전국 당간부 양성부문 교원강습회 개강사(8.21.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8.28. 당과 정부의 간부들 각지 청년들과 함께 청년절을 기념 축하(8.29. 노동·중통)

8.28. 전국청년학생들의 남자배구결승경기 참관(8.29. 노동)

주철규(당 부장)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15. 대동강팀과 횃불팀사이 횃불컵축구경기 관람(8.16.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최선희(외무상)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해방탑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경의 의식 참가(8.15. 노동·중통)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기념 체육문화행사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8.25.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8.26. 노동·중통)

전춘길(당 부장)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최창학(당 중앙위 제1부부장)

8.20. 전국 당간부 양성부문 교원강습회 총화보고(8.21. 노동·중통)

한종혁(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8.13. 조국해방 81돐 경축 근로단체들에서 웅변모임 진행(8.14. 노동·중통)

8.14. 조국해방 81돐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8.15. 노동·중통)

현송월(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8.8. 김정은 위원장, 창립 80돐 맞이 국립교향악단 창작가, 예술인들과 기념사진 촬영시 동행(8.9. 노동·중통)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4.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절 81돐 계기 해방탑 방문 시 동행(8.15. 노동·중통)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기념 체육문화행사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현은철(문화상)

8.8. 김정은 위원장, 창립 80돐 맞이 국립교향악단 창작가, 예술인들과 기념사진 촬영시 맞이(8.9. 노동·중통)

8.16. 김정은 위원장, 조국해방 81돐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 시 동행(8.17. 노동·중통)

월간 보도일지

8.1.(토)

대내 o 신포시 바닷가양식사업소·지방공업공장 등 발전상 선전(노동)
o 구성공업기술대학창립 7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o 과학기술부문대학 대학생 다국어경연-2026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o 나토의 유럽 내 군수·연료 인프라 확충 발표 관련 비난 논평(노동·중통)

8.2.(일)

대내 o 문수물놀이장 선전(노동)
o 평안남도에서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프로그램 전시회, 교육지원전시회 진행(중통)

대남

대외 o 일본의 '비핵3원칙' 수정 움직임 비난(노동)

8.3.(월)

대내 o 여러 부문·단위 7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선전(노동)
o 남포학생소년궁전 신축, 준공식 진행(노동)
o《보통교육부문 교수방법토론회 및 교양경험발표회-2026》진행(노동)

대남

대외

8.4.(화)

대내 o 조선노동당의 사상, 정책의 우수성 선전 및 정책관철 성과 부각(노동)
o 박태성 내각총리,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보산제철소 현지요해(노동·중통)

대남

대외 o 외무성 대변인, 미국 등 사이버 위협 관련 '공동 경고문' 발표 비난(중통)
o 군사논평원, 미일한《3위1체》성 위협 관련 비난(중통)

8.5.(수)

대내 o '70년대 당 영도계승기를 회고하며 당에 대한 무조건적 충실성 강조(노동)
o《전국가구 및 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2026》개막(노동·중통)
o《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2026》개막(노동·중통)

대남

대외 o 일본의 선제공격능력 관련 김여정 당 부장 담화(중통)

o 서방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 행보(노동)

8.6.(목)

대내
o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책 선전(노동)
o 교육 발전을 위한 지역별 경쟁 전개(노동)
o 3대혁명전시관 창립 8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

대남

대외

8.7.(금)

대내
o 지방발전·농촌건설 진행 성과 선전(노동)
o 여성동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o 일본 방위백서("중국의 위협") 관련 중국 국방부 입장 소개(노동)

8.8.(토)

대내
o 국립교향악단 창립 80주년 관련 △김정은 위원장, 축하서한 발송 △공로자들 훈장수여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o 박태성 내각총리 농업부문 현지요해(노동·중통)
o 태풍 13호 관련 재해성현상 예견(노동)

대남

대외

8.9.(일)

대내
o 국립교향악단 창립 80주년 관련 △김정은 위원장, 기념사진촬영 △기념음악회 진행 △공로자들 국가표창 수여(노동·중통)
o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생산성과 확대(중통)

대남

대외
o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리용선) 평양 도착(노동·중통)

8.10.(월)

대내
o 평양기초식품공장창립 8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o 신의주시 청년염소목장 개건, 보여주기 실행(노동)

대남

대외

8.11.(화)

대내
- o 전면적 발전의 시대적 요구 : 당 일군의 자세 강조(노동)
- o 재해성 이상기후 철저 대처 주문(노동)
- o 평양시학생소년들의 취주악대경연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일본 방위백서 관련 국제안보문제평론가 명의 논평(노동·중통)

8.12.(수)

대내
- o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 강조(노동)
- o 시·군 등 지방정부 자립적 발전 추동 선전(노동)

대남
- o 우리 핵잠수함 추진 관련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10국장 담화(중통)

대외
- o 일본 재무장 및 핵보유 시도 비난(노동)
-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라오스 싸이썸폰 전 민족회의 의장 사망 조전(중통)
- o 일본 원자로 신설 등 원자력정책 관련 국제문제평론가 명의 논평(중통)

8.13.(목)

대내
- o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81주년 기념 분위기 조성(노동)
- o 보건부문 의료교육체계 혁신 강조(노동)
- o 5개년계획수행 모범 사례 선전(노동)

대남

대외

8.14.(금)

대내
- o 3대혁명 구호(3대혁명 기치높이 계속혁신 앞으로!) 강조(노동)
- o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81주년 관련 △근로단체 웅변모임 △학생소년 시낭송발표 등 진행(노동·중통)
- o 과학기술 인재 배출 당 정책 선전(노동)

대남
- o 한미연합훈련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노동·중통)

대외
- o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 관련 비난 논평(노동·중통)

8.15.(토)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81주년 관련 항일혁명열사릉 및 해방탑 방문(노동)
- o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81주년 관련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의식진행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신미리애국열사릉에 꽃송이 진정(노동)
- o 전국의료기구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노동)

대남

대외
- o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 해방탑과 러시아군열사 묘에 화환 진정(노동)
- o 러시아 대통령 및 통일러시아 위원장이 축전 발송(노동·중통)

8.16.(일)

대내 ㅇ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81주년 기념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 △대동강팀과 홰불팀 사이에 홰불컵축구경기 △여맹일군들과 여맹원들의 무도회 진행 등(노동·중통)
ㅇ 기계공업부문에서 탄광들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에 주력(중통)

대남

대외 ㅇ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81주년 기념 △팔레스타인 △니카라과 공동대통령 등 축전 발송(노동·중통)
ㅇ 김정은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축전에 답전 발송(노동·중통)

8.17.(월)

대내 ㅇ 김정은 위원장, 해방('조국해방') 81주년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및 체육문화행사 관람(노동·중통)
ㅇ 평남탄전에서 집중강연선전대활동 활발히 전개(중통)

대남

대외 ㅇ 해방('조국해방') 81주년 관련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노동·중통)

8.18.(화)

대내 ㅇ 생산과 건설에 대한 지도방법, 지도방식 혁신 강조(노동)
ㅇ 박태성 내각총리 여러부문 사업 현지요해(노동)
ㅇ《전국준법교양자료전시회-2026》 개막(노동·중통)

대남

대외 ㅇ 러시아 외무상, 최선희 외무상에게 광복절 계기 축전(중통)
ㅇ 러시아교육실습용돛배《빨라다》호 성원들 원산시안의 여러곳 참관 후 원산항 출발(노동·중통)

8.19.(수)

대내 ㅇ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대중의 투쟁과 노력 강조(노동)
ㅇ 제7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 개막(노동)

대남

대외 ㅇ 김여정 부장,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한 입장 발표(중통)
ㅇ 한미연합훈련 실시 관련 기존 입장 재확인 중통 논평(노동·중통)

8.20.(목)

대내 ㅇ 9기 과업 관철을 위한 당조직의 규율·질서 확립 강조(노동)
ㅇ 사회주의 경쟁의 역할·중요성 강조(노동)

대남 ㅇ 김여정 부장,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 담화(중통)

대외

8.21.(금)

대내 ㅇ 전국 당 간부 양성부문 교원강습회 진행(노동·중통)
ㅇ 시·군청년동맹위원장 강습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ㅇ 일본 '비핵 3원칙' 개정 및 핵보유 시도 관련 비난(노동)

8.22.(토)

대내 ㅇ 전국 당 간부 양성부문교원강습회 참가자들 정치문화사업 진행(노동·중통)
ㅇ 평양시 청년 탄원자들의 연단 진행(노동·중통)
ㅇ 전국 농근맹 일군들과 초급 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직지 답사행군대 출발모임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ㅇ 조선기자동맹대표단, 제30차 현대기자연단(러시아 소치) 참가 21일 출발(노동)
ㅇ 제10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행사 진행(노동·중통)
ㅇ 일본 방위비 증액 관련 중통 논평(노동·중통)

8.23.(일)

대내 ㅇ 제15차 전국교원대회, 9월 초 평양 진행 예고(노동)
ㅇ 폭우·많은비 주의경보 발령, 예방대책 강조(노동)
ㅇ《김정일전집》제70권 출판(노동·중통)

대남

대외

8.24.(월)

대내 ㅇ '자력갱생' 혁명정신 강조(노동)
ㅇ 강원도 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철령 답사(노동)
ㅇ 폭우·벼락·돌풍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준비 강조(중방)

대남

대외 ㅇ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참배 비난 중통 논평(노동·중통)

8.25.(화)

대내 ㅇ 박태성 총리, 삼지연관광지구, 함흥시 공장·기업소 현지요해(노동·중통)
ㅇ 제15차 전국교원대회맞이 교육지원 전시회 개막(노동)

대남

대외 ㅇ 제11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 대회 우승 성과 선전(노동)

8.26.(수)

대내 ㅇ 당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노동·중통)
ㅇ 인민군대의 헌신·노력 강조(노동)
ㅇ 지방공업공장 및 종합봉사소 활성화를 위한 정평군 사례 선전(노동)

대남

대외

8.27.(목)

대내
- o 일군들의 혁명적 실행의지로 과업 관철 주문(노동)
- o 당의 육아정책 성과 선전(노동)
- o 재해성 기후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강조(노동)

대남

대외
- o 미국 대남 무기판매 및 국무부 인권사업 관련 외무성 대변인 대답(중통)

8.28.(금)

대내
- o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명사십리역 준공식 진행(노동·중통)
- o 청년절(8.28.) 35주년 관련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 청년운동사적관 참관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진행 등(노동)
- o 해군절(8.28.) 기념 보도(노동)

대남

대외
- o 영국 주재 대사관 대리대사 체제 조정 발표(외무성 홈페이지)

8.29.(토)

대내
- o 청년절(8.28.) 35주년 관련 △당·정 간부들, 각지 공장·기업소·탄광·대학 방문 △청년학생 무도회 △횃불컵 축구 및 남자배구 결승경기 등(노동·중통)
- o 제7회 대학생기억경연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김정은 위원장, 중국 시진핑 및 네팔 대통령에게 네팔 사태 관련 위문전문(8.28. 중통, 8.29. 노동)

8.30.(일)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 개최(노동·중통)
- o 김정은 위원장, 국방력 강화 공헌자들에 국가표창 및 기념사진 촬영(노동·중통)

대남

대외

8.31.(월)

대내
- o 금속공업 부문 증산 독려(노동)
- o 원가저하와 절약 강조(노동)

대남

대외
- o 미국의 북한 비핵화 관련 입장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중통)

이달의 약사

- **08.01.** '200해리 경제수역' 발효(1977년 6월 21일 채택, 8월 1일 발효)
- **08.01.**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1990년)
- **08.01.** 「남북 교류협력 기금법」 제정(1990년)
- **08.04.** 북한, 「조국통일 3대 헌장」 제시일(1997년, 김정일 제시)
- **08.04.** 북한, DMZ 지뢰도발(2015년)
- **08.05.** 제6차 4자회담 개최(1999년 8월 5일 ~ 9일, 제네바, 1~6차)
- **08.05.** 북한 화성-14형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2017년)
- **08.06.** 「통일교육지원법」 시행(1999년)
- **08.10.**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 공포일(1946년)
- **08.10.** '임업 노동자절' (1962년 10월 18일 제정, 1983년부터 8월 10일로 개정)
- **08.12.** 한적, 남북 적십자회담 제의(1971년)
- **08.14.** 김일성, '남북 연방제' 제시일(1960년)
- **08.14.** 아테네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2004년)
- **08.14.**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2013년)
- **08.15.** 광복절(조국해방의 날)(1945년)
- **08.15.** '평화통일구상 선언' 발표(1970년)
- **08.15.**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제시(1974년)
- **08.15.** 북한,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 연합」 결성(1992년)
- **08.15.**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1994년)
- **08.18.** 북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1976년)
- **08.19.** KEDO 경수로 사업 착공식(1997년)
- **08.20.**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발효(2003년)
- **08.20.** 북한, DMZ 포격도발(2015년)
- **08.20.** 공군절(1972년 5월 20일 제정)
- **08.25.** 「반제민족민주전선」 결성일(1969년)
  ※ 1969. 8. 25. 「통혁당」창당 → 1985. 7. 27.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 → 2005. 3. 23.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재개칭
- **08.25.** 북한, '비동맹회의' 가입(1975년)

- **08.25.** 선군절(2013년 8월 26일 제정)
- **08.25.** 남북 고위급 접촉(2015년 8월 22일~25일, 판문점)
- **08.2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 **08.27.** 제1차 6자회담 개최(2003년 8월 27일 ~ 29일, 베이징)
- **08.28.** 「조선 공산주의 청년동맹」 결성(1927년)
- **08.28.** '해군절'(1972년 6월 3일 제정)
- **08.28.** '청년절'(1991년 2월 1일 제정)
- **08.28.**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2013년)
- **08.31.** 북한, '대포동 1호' 발사(1998년)